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 속을 살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8호 2017년 3월 8일 수요일

대행 선사 禪法, 학술 연구 시작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활동 본격화

모든 만물만생이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하는 한마음의 도리임을 설파하고,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 사진)의 선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 연구가 본격화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2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 창립 배경과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풍(禪風)과 사상,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창립됐다.

초대 원장으로는 불교 석학인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선임됐고, 대행 선사 관련 박사 논문을 처음 썼던 혜선 스님이 연구실장을, 대행 선사의 선 수행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 청강 스님이 연구부실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귀 박사와 박소령 박사는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해 대행선 연구를 진행한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 선사의 크나큰 발자취를 기록에 남겨 후학들에게도 선사의 법미(法味)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연구원을 창립했다"면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대행선을 보급 · 전파해 제2, 3의 선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 창립에 5년이 걸린 것은 올바른 선양 · 연구 사업을 위해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창립 1년차를 맞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 주제는 '대행선이란 무엇인가'이다. 이는 대행 선사가 수많은 설법 등을 통해 남긴 '대행선'의 요체를 정의하는 기초 작업이다. 2020년까지 진행되는 연구들 역시 대행선의 학술적 이론을 닦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대행선연구원은 1년차 이후 연구 주제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2018년) △대행선의 수행과 깨달음(2019년) △한국불교에서 대행선의 위상(2020년)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대행선에 대해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대행 선사의 수행법은 관법이다. 중국의 종파불교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대행선은 본성을 진여(眞如)로 보는 '성종(性宗)'에 가깝다"면서 "일체가 한마음 주인공(主人空)의 나툼이라는 것을 관법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8월 대행선연구원 창립
학자 5명 상근하며 연구 진행
오는 5월 19일 첫 학술대회
발표논문 英譯해 세계에 배포

대행선 사상 · 정체성 등 연구
禪法 보급 · 전파도 박차 계획
"제2,3의 선사 나오도록 노력"

대행선연구원 연구부실장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는 생활 속에서의 관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일체가 한마음 불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믿고, 내려놓고 일상에서의 나툼을 지켜보고, 그 가운데에서 참구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성이 발견된다. 또한 대행 선사 관법의 핵심은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회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은 이 같은 1차년도 연구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대행선의 요체와 사상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평래 원장의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대행 선사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의 성격'(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본래성불사상과 관련하여'(김호귀 객원연구원) △'대행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거 고찰'(박소령 객원연구원)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 남수영 동국대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향후 발표 논문들은 영역 작업을 거쳐 한글 · 영역 합본 형태의 논문집으로 출간돼 국내외 유명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평래 원장은 "한글과 영역 합본 논문집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은 대행선 사상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 연구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이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차GBC 건립 전면 재검토하라"

조계종, 영향평가 분석
강남구에 의견서 제출
공정한 공청회 개최 요구도

지난달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초안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조계종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청회를 요청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 · 원명)는 2월 28일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 분석결과를 발표한 뒤 3월 2일 강남구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제출된 평가서는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절차에 따른 요식적 행위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인허가 관련 기관장(시장 · 구청장)이 참여해 사업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대안 및 세부항목, 지표항목 등 부실로 전면수정 △전통문화경관과 일조권, 도심 생태성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주변지역 현황 알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제시 △공공시설물 영향 기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인 교수(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는 "문화재인 봉은사 지역에 대한 일조피해 및 야간 조명 등 빛 공해 사전 · 사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계절별 차이가 크므로 최소 1년 사계절 일조량에 대한 실측과 영향을 분석한 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측 초안에서는 일조장해 판단기준을 법원 판례에 뒀다. 이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봉은사 선불당 기준 햇빛을 가리는 시간이 오전 8~9시 사이 총 44분으로 분석했다. 즉 햇빛을 가리기는 하지만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일조장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영경 교수(동국대 경주캠 자연과학대학장)는 "보고서에 제시된 그림이나 도면이 사업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105층 건물은 어떠한 설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기 어렵다. 도시적 맥락에는 부응하지 않는 계획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달마보더들의 열정 늦겨울 설원 녹이다

평창 D-340,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

불교계가 주축이 돼 국내 최대 스노보드대회로 발전시킨 '달마오픈 챔피언쉽'이 3월 1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올림픽 규격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들을 비롯해 아마추어 및 유소년 선수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3년부터 달마오픈을 개최해 온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이곳에서 달마오픈 대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도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 스님들과 지역사찰 신도들이 참석해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이런 불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선수들은 평소보다 과감히 기술을 선보였다. 대회에서 대중들의 열정은 늦겨울 강원도 설원을 녹일 듯 뜨거웠다. 〈관련 기사 5면〉

평창=노덕현 기자



경기 직전 출발선에 선 스노보더들이 힘찬 함성을 내지르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회를 14년째 이끌어 온 호산 스님(사진 왼쪽 네번째)의 미소 속에 흐뭇함이 느껴진다.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불교대학 수강생 감소, 대안은 '교육목표 설정'

[진단] 위기의 불교대학, 돌파구는?

"강릉에는 현재 인구 20만에 천태종까지 포함하면 5개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이미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배헌영 강원불교대학 부학장

"많은 불교대학들이 학생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경쟁하면 서로 피해만 볼 것입니다."

- 원주불교대학 학장 해운 스님

2월 21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2017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쏟아진 불교대학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불교 교육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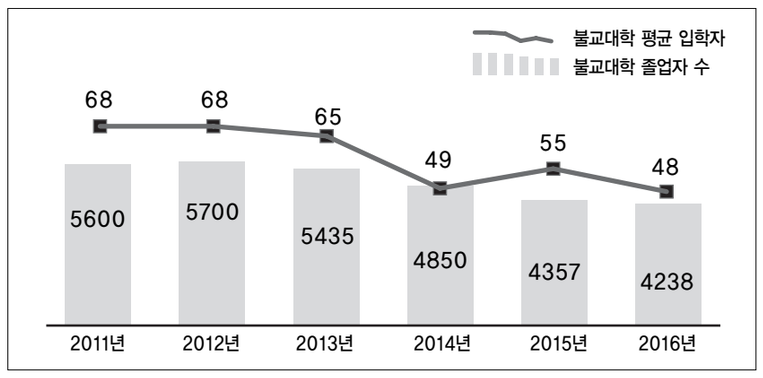
불교대학 수강생 수년 새 급감

신도전문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처음 입문한 신도들을 위한 신도기본교육의 다음 단계로 조계종 신도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핵심 신도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과정으로 연간 96시간 이상의 1년 또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불교대학 수강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08곳의 불교대학에 7300명이 입학했으며, △2012년 121곳에 8200명 △2013년 126곳에 8127명 △2014년 138곳에 6713명 △2015년 146곳에 8010명 △2016년 139곳에 6760명이 입학했다.

전체 입학자 수를 보면 연도별 등락에 따라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불교대학 평균 입학자 수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68명에서 2013년 65명, 2014년 49명, 2015년 55명, 2016년 48명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일선 불교대학에서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받을 사람은 이미 다 받았다?



불교대학 수강생들은 왜 줄어들까. 화성 신흥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한 포교사는 "스님이 포교와 신도교육에 열심히 나서지만 예전에 비해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불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미 교육을 받을 사람은 다 받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대학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6개월 과정인 신행불교대학이다. 신행불교대학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불교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찰에서 2018년 6월까지 운영되는 임시 단기과정이다. 교강사를 두지 않아도 조계종 디지털대학의 동영상 강의나 사찰 주지 스님 강의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시간도 72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졸업자 혜택은 기존 불교대학과 동일하다. 포교원은 접근성을 높여 그동안 기존 불교대학에 가지 못한 불자들이 신도전문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기존 불교대학 측은 우려를 표했다. 울산 정토사불교대학 학장 덕진 스님은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단기 교육 후 동일한 자격을 주어 배출하면 기존 불교대학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이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며 "한시적 시행이며 기존 불교대학과의 중복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온 · 오프 복합, 자격 목표 설정 필요

그렇다면 기존 불교대학은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을까. 불교교육 전문가들은 아직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 제시와 명강사 양성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D불교대학 관계자는 "불교대학들이 현재 사찰 내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찰 밖으로도 시선을 넓혀야 한다"며 "온라인의 경우 상대평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불교대학 입학동기가 대부분 졸업자 추천이란 점에서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수강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개선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조계종 포교현황을 살펴보면 등락이 있는 입학자와 달리 졸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 측도 필수연수 미이수와 학업성취도 미흡으로 인한 중도하차로 졸업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수강생 입장에서의 교육개선을 들며 △교육자 양성 △눈높이 교육 △자격증 등 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교대학 성패는 강의 질이 좌우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강사 양성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불교대학 입학생의 포교사란 목표설정이 모호해진 지금, 명상지도 등 다양한 자격 부여와 같은 비전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년이여, 108배 App으로 위안을"

조계종 포교원, '중년 마음거울 108' 선봬

연내 청년 위한 앱 개발도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도 쓸쓸한데…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왜 이리 많은지…."

'중년의 위기'다. 4050세대를 아우르는 중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돌봐야 할 이들이 많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시기로 꼽힌다. 더구나 요즘 중년세대는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의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중년세대가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은 최근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 앱은 실직과 불안, 일에 대한 압박과 가족 갈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중년세대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주체적인 삶을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앱은 자아실현, 자기발견과 건강, 가족관계, 일과 사회관계, 나눔과 종교의 대주제와 19개 세분화된 소주제에 나뉘어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던 차별과 편견을 모두 버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등 108개의 문구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화면에 나온다. 또 차분한 음악과 함께 남성과 여성 각각 2가지 목소리가 문구를 낭독한다.

이번 중년 마음거울 108 앱은 2012년 '어린이 마음거울 108'과 '청소년 마음거울 108', 2015년 '어르신 마음거울 108' 앱에 이은 네 번째 앱이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든 마음거울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마음거울 시리즈 앱 개발을 총괄한 원일훈 홍익대 교수는 "종교색채가 옅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활 속에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중년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붓다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연내 청년들을 위한 앱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신행혁신운동과도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선출 비쟁사갈마, 직선제 적합"

총무원장 직선 대중공사, 공청회서 당위성 강조

"총무원장 선출과 같은 소임자 선출은 비쟁사갈마이므로 후보자 고지 후 1번 묻는 백이갈마(白二 w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직선제는 후보가 다수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율장에서 보면 백이갈마라 할 수 있다."

오는 10월 열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안팎에서 직선제를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는 2월 28일 서울시청 시민청서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前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율장에 언급된 다수결을 언급하며, 직선제가 율장정신에 가깝고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허정 스님은 "현전승가에서는 모든 사안을 대중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데 그 대중공사를 갈마라 한다. 갈마는 내용에 따라 쟁사(諍事)갈마와 비쟁사갈마가 있다"며 "총무원장 선출은 소임자 선출, 결계 등에 사용되는 백이갈마다. 본사별로 같은 날짜에 포살을 실시하고 포살이 끝나면 투표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허정 스님 법응 스님 박병기 교수 옥복연 소장

스님은 "소임자를 선출하는 비쟁사갈마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탈락한 후보자가 승단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비법(非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교관과 정책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고 후보자토론을 통해 토론문화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종단의 현실적 측면과 그간 경험으로 볼 때 구체적인 전략과 확고한 실천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승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른바 샤이혁신세력을 적극적인 직선제의 장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법응 스님은 직선제 관철을 위해 △불교적인지 △대중 호응도 △입법화 전략 △직선제 주장이 반 집행부라는 인식 문제 △추진세력 자체의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국내서 종교가 갖는 낮은 위상과 불교계 차별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은 종단 내 비구니 차별의 제도화를 비판하고, 성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선 대중공사는 '청정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발기인으로는 승가 116명, 재가 153명이 참여했으며 서포터즈 단장은 박병기 교수가 맡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찾아 53선지식 만난다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사찰순례를 진행하고 녹색사찰 유형을 개발, 유형별 모델 사찰을 선정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지혜실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녹색불교&녹색사찰 프로젝트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사찰순례'를 진행한다.

이는 53개 사찰을 방문, 녹색사찰 유형을 개발하고 유형별 모델 사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찰림의 관리와 활용, 사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 전환과 단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찰의 지역사회 기여 등 면에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버드나무 10만 그루 심기 국민 캠페인'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버드나무 3만 그루를 심는다.

이밖에 기존 프로그램인 숲해설가 양성과 파견활동, 재정안정화와 공간마련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 회원배가 운동 등 전개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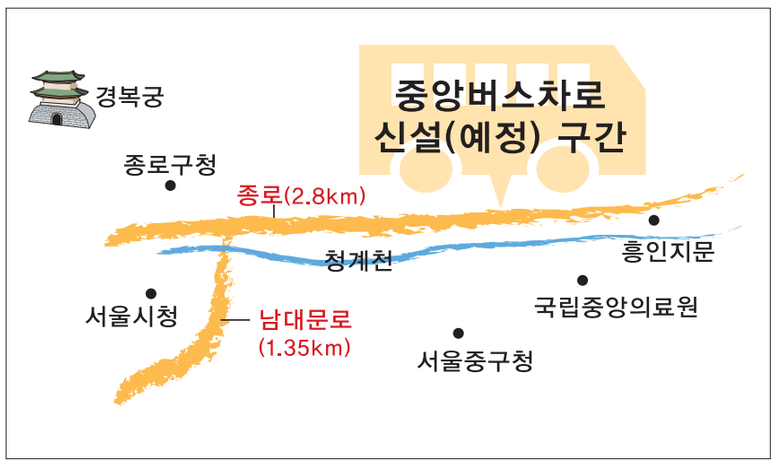
‘중앙버스차로제’ 난관 부딪힌 연등회

서울시, 종로BRT 추진
연등회보존위 ‘난색’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종로 중앙버스차로제(BRT)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과 종로1가~숭례문(1.35㎞) 구간에 BRT를 설치하고, 왕복 8차로 도로를 6차로로 변경해 관광버스 주차공간과 자전거길 등을 마련하는 도로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구하는 등 BRT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하는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과 함께 도보문화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연등회보존위원회와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로에 추진 중인 BRT 구간은 연등회 백미(白眉)인 연등행렬 구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연등회보존위는 BRT 설치에 대해 서울시에 난색을 표했다. 보존위는 “연등행렬이 도로 중심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행사 진행이 어려운 데다가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사회서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 부처에 제출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보존위는 연등회 행사장소 변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종로와 남대문로에 추진 중인 ‘중앙버스차로제’ 구간.

세종대로4가~흥인지문 구간
연등회 시야방해·사고 우려
행사장소 변경 고려 안 해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 난항

보존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연등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로와 연등회가 갖는 역사·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장소를 변경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종로구청과 몇몇 동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로구청과 창신동 등서 종로 BRT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업 반대보다는 좌·우회전 등 교통편의성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등회보존위는 BRT 반대가 자칫 종교 이기주의로 대중에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서울시는 연등회보존위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초 연등행렬 장소를 남산~남대문으로 변경하는 안은 보존위 측 반대에 따라 철회됐고, 최근에는 행사 시 버스정류장 분리에 관한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류장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사 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원활한 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큰 그림서 볼 때 종로구간만 버스중앙차로가 끊겨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 원활화 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BRT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연등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류장 분리의 경우 연등회 외에 다른 행사들도 해당되는 만큼 주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연등회보존위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해 불교계 내에서는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상황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美 선불교 지도자 ‘노만 피셔’ 3월 방한

8일부터 13일간 자비법문·행법 등 대중강연



선(禪)의 영역을 비즈니스, 법률 등 현대 각 분야로 확장시켜 온 미국의 대표적인 선 지도자 ‘노만 피셔’(Norman Fischer·사진)가 방한한다.

서울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권선아 스트리트젠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다르마 프렌즈’는 2월 28일 서울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노만 피셔 방한 계획을 공개했다.

노만 피셔는 3월 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입니다’ 강연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3일간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10~11일 서울 상도선원에서 ‘텅 빈 충만, 염화미소의 자비심’을 주제로 선불교의 자비법문과 행법을 설명하며, 13일 부산 흥법사에서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연결돼 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14일 부산 관음사에서 ‘행복한 삶, 평화로운 죽음’을 주제로 호스피스 이야기를 풀어가며, 16~19일 해남 미황사에서 ‘우레와 같은 침묵의 소리’를 주제로 묵조선 수행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깨어있는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오피니언 리더와의 즉문즉답도 진행된다.

이번에 방한하는 노만 피셔는 서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규모가 큰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지도법사로 현재 선불교 가르침을 서양문화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에브리데이 젠(Everyday Zen)’ 재단 상임법사이자 정신적 구심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유연함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의 가르침은 서양의 삶에 선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만 피셔는 특히 ‘컴퍼니 타임’이란 워크숍을 통해 불교의 자비실천을 변호사와 갈등조정자 등에게 자비실천을 가르쳐 왔으며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자문하기도 했다. 종교간 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1996년 게세마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열린 종교간 대화에 달라이라마와 함께 참여했고, 2014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원 스님 49재 “스님 뜻, 잇겠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 2월 25일 광화문 광장서 49재

지난 1월 7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이 떠나간 지 49일째. 정원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유지를 받들 것을 약속하는 만장이 광화문 광장에 휘날렸다.

범불교시국회의는 2월 25일 광화문 광장서 ‘민주·정의·평화의 수행자 정원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헌향, 헌화에 이어 추모집 헌정식, 추모사, 발원문 합송, 봉송의식 등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자리엔 500여 시민들이 운집해 정원 스님의 유지를 받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재마 스님이 대표 낭독한 추모 발원문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광장에 수십만의 촛불이 타오르던 날, 광장의 한편에서 자신의 삶을 부처님 전에 바침으로써 국민들 뜻이 이뤄지길 염원하던 이가 있었다. 정원 스님은 이 광장서 민중들과 고락을 함께하고 가는 날까지 일체민중의 행복을 발원하며 몸을 사른 운수납자였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님의 소신공양은 원칙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외면한 정부에 내리는 조용하지만 엄중한 경책이었다”며 “스님의 숭고한 뜻이 민중의 염원이 뜨겁게 타오르는 광장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500여 시민 운집해 추모
발원문 합송·봉송의식 등
“역사 속 한줄기 불꽃 되길”

아울러 유족대표로 재단에 오른 정원 스님의 속가동생 서상원 씨는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한줄기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씨는 “정원 스님은 큰스님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다. 그저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한 것 뿐”이라며 “이곳 광화문의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정원 스님의 소신공양이 역사 속 한줄기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원 스님의 영정을 들고 봉송의식에 임하고 있는 범불교시국회의 스님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 한편에선 빈곤과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세모녀 3주기 추모재도 봉행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 5개 단체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시민 추모행동을 개최했다.

사회노동위 등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 2017년에도 생계고로 죽어간 사람이 여럿 있다며 “정부는 현재 복지제도가 또다른 송파 세모녀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단 것을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고, ‘복지는 국가책임’이란 것을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평창올림픽, 템플스테이로 ‘더 풍성히’

외국인 체험 5만 명 목표…
운영 사찰 확대, 편의 도모

한국불교 문화체험의 대표 템플스테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인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템플스테이 체험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템플스테이 사찰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계절별 관광코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8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2017년 전국 123개 사찰서 운영되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도 추진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전후에 걸쳐 강원지역 문화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평창 월정사, 양양 낙산사, 속초 신흥사, 인제 백담사 등 강원내 주요사찰(13곳 예정) 및 수도권(9곳 예정)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전담 자원봉사자 약 150명을 배치한다.

먼저 외국인 체험 5만 명을 목표로 마이스(MICE) 산업 결합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현재 외국인 전문 24개소, 특화 프로그램 ‘아생여당(위로, 건강, 비움, 꿈 4가지 콘셉트의 템플스테이 브랜드)’ 16개소, 사찰음식 특화 16개소로 운영되는 전문화 사찰을 확대 지정 및 운영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 사찰의 ‘맛과 멋의 여행’ 프로그램은 4계절마다 연계관광코스를 선보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특히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1박 이상으로 진행되던 것을 관광객 편의를 도모, 당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한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2017년에도 바쁜 현대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를 지속 육성할 것”이라며 “템플스테이가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행사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templestay.com

박아름 기자



일 주 문



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4월 7~8일 경내서 '제57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4월 1~3일 경내서 '불기 2561년 정유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일요 선지식 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3월 5일 반야전서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를 초청해 '일요 선지식 법회'를 봉행했다.



적묵당 약사여래불 점안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2월 26일 경내서 신중기도 입재식 및 적묵당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동국대 의료원장 취임

오민구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은 2월 27일 동국대일산병원 대강당서 취임식을 갖고 17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조계사 발심정진 주간 선포식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서 '출가 · 열반재일 발심정진 주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사 신도회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한 기금 7000만원을 주지 지현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출가 · 열반재일을 맞아 스님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아 지현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승보공양 의식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이전 비움과소통 사무실

도서출판 비움과소통(대표 김성우)은 2월 27일 파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비움과소통 책방은 인터넷 위주로 운영한다. 이전한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89-8, 예일아트빌 103동 102호다. (031)945-8739

"현대인 마음수행에 한국불교 미래있어"

Interview

참사람의향기 100회 회향한 금강 스님



해남 천년고찰 미황사의 간화선 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가 2월 25일 100회를 회향했다. 2005년부터 시작해 12년간 이어져 온 '참사람의 향기'는 7박 8일간 체계적인 선수행으로 불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1,875명이 참여한 대표적인 수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달 한차례 씩 열리는 '참사람의 향기'를 꾸준히 이끌어 온 주인공이 바로 금강 스님이다. 17세 때 해남 대흥사로 출가한 스님은 범종단개혁추진회 공동대표,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무총장 등을 맡는 등 불교혁신에 관심이 높았다. 이런 스님이 땅끝마을에 위치한 사찰에서 수행프로그램에 매진한 것은 혁신에 대한 원동력이 바로 출재가를 막론한 수행가풍 진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1997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모시고 수행운동인 '참사람 결사운동'

서옹 스님 가르침 받들어
미황사 주지되며 시작해
매달 8일간 재가수행 지도

의 일환으로 무차선회(無遮禪會)를 진행했다. 당시 출재가를 막론하고 수행에 대한 열기가 높았다"며 "서옹 스님은 현재가 욕망의 시대이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를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불교를 바꾸는 것은 이런 수행력이라는 것을 느끼고 수행프로그램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사람의 향기'는 묵언 하에 하루 두 끼만 먹는 오후불식이 기본이다. 참선, 수행점검, 수행체제에 대한 법문과 다도와 산행 등 단기출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일째까지 수식관(數息觀)을 하고, 이후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면 화두간택에 들어간다. 모든 과정은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스님은 재가자들의 수행지도를 통해 지도하는 스님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주지를 맡으면 마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행지도를 한 달에 한 번 씩 하며 오히려 나도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직자와 부적응학생 등 다양한 사회 소외계층이 수행을 통해 힘을 얻어 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스님은 불교계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음수행에 불교의 미래가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그 동안 포교가 신행과 교학 위주였다면 이제는 수행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간화선은 초기에만 잘 잡아주면 스스로 점검하며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초반에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요."

스님은 "스님들도 현대적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며 "세상 사람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방의 씨앗 민족에 뿌린 큰 스승"

김천 직지사, 3 · 1절 맞아 봉률 스님 추모



김천 직지사(주지 법등)는 3월 1일 3 · 1절을 맞아 포월당 봉률 스님 추모재를 봉행했다.

봉률 스님 추모비 앞에서 봉행된 행사서 직지사 부주지 묘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봉률 스님께서 기미년 3월 1일 해인사 주변을 물들였던 태극기가 이 나라의 집집마다 펄럭이고 있다"며 "우리말을 쓰지 못해 입과 귀가 막히고, 우리글을 쓰지 못해 손과 발이 묶여야 했던 동토의 일제강점기에도 스님께서는 해방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민족의 마음에 뿌리셨다"며 봉률 스님의 업적을 칭송했다.

1897년 6월 경남 합천군서 태어난 봉률 스님은 1919년 3.1운동 때는 해인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1922년까지 서간도의 만주신흥무관학교서 교육을 받은 후 만주일대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다. 스님은 입적 47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2004년 유족이 대신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지역 비보 사찰로 우뚝 설 것"

〈裨補〉

김해 바라밀선원, 2월 25일 신축이전 개원법회

경남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이 2월 25일 개원한 법당서 신축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신축 개원한 법당은 김해 지역에 바라밀선원을 열고 포교한 지 4년 만에 이룬 결과로, 현대적 건물 양식을 선보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 및 쉼터로 회향될 예정이다. 이날 바라밀선원 조실 지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그동안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홍법'임을 강조했다.

지안 스님은 "불사는 홍법을 위한 것이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불자와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비보사찰이란 혼란한 시대에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재앙은 사라지며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도운 절이다. 비보사찰처럼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바라밀 선원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조실 지안 스님이 개원법회서 '비보사찰'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해운정사, 정월 효 한마당 잔치



대구 송현동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2월 24일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정월 맞이 '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윤옥 달서종합복지관장, 장근기 송현동장, 지역단체장 및 해운정사 관음회 신도들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관내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함께 갖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법전 스님 71주기 추모 다례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22일 경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육화원에서 고경당 법전 스님 7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 다례재는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대구BBS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등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동곡문도 문장 혜국 스님은 "큰스님처럼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수행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대전 서구노인福, 노인대 입학식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2월 28일 복지관에서 제24기 우리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입학생 400여명은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축하 속에 보람찬 첫발을 내디뎠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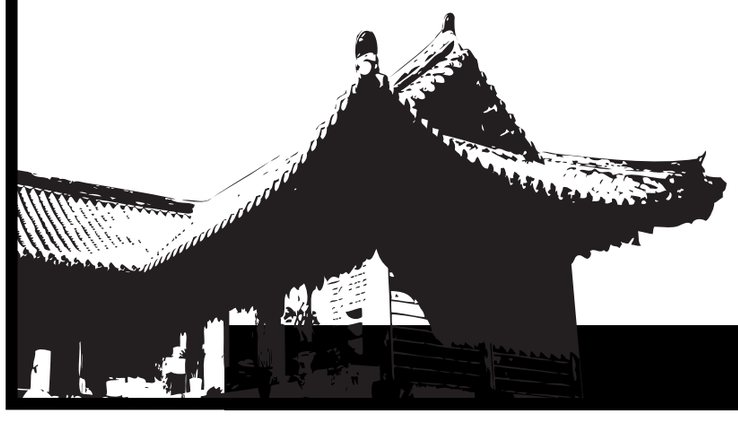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올림픽 프레로 열린 달마오픈 〈Pre〉 스키장서 젊은 달마를 보다

설원 위 펼쳐지는 스노보드 선수들의 묘기에 관전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다. 불교계가 개최한 대회인 탓에 유독 불자선수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사진은 불자인 설송 유대해 선수가 하드파이프 첫 점프 지점에서 기술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한 유소년 선수들의 모습.


스님과 참가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장 출발선의 조계종 플래카드가 이채롭다.



한 선수가 마치 날듯이 기술을 펼치고 있다.

제14회 달마오픈 챔피언쉽 3월 1일 개최…유소년 등 160여 명 참여

"와아!" 하얀 반원형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장 위에 선수들의 묘기에 가까운 기술이 펼쳐질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온다. 멋진 기술에 빠진 것도 잠시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순간, '꽈당'. 지켜보는 스님들과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아아, 저 선수 다리가 풀렸어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중계진의 재치있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오고 경기장 내에는 웃음이 터진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넘어져 있던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 기술에 도전한다. 경기장은 이내 뜨거운 격려의 박수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평창올림픽을 1년 여 앞둔 3월 1일, 불교계가 주축이 된 '달마오픈 챔피언쉽'에서 펼쳐진 풍경이다.

달마오픈 챔피언쉽(이하 달마오픈)은 스노보드 종목 중 하프파이프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대회로 국내외 위상이 높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마련된 이번 대회는 특히 올림픽 기준으로 경기장이 준비돼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 유소년 꿈나무 등 160명이 참여했다.

대회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오후, 경기장 아래에서는 한 스님이 경기 전인 선수들을 부지런히 찾아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올해로 벌써 14년째 대회를 이끌어 온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었다.

호산 스님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달마오픈을 치르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져 꿈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2003년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로 시작한 달마오픈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조계종이 주최하는 행사로 격상됐으며, 주관도 달마오픈조직위원회와 대한스키협회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를 통해 국제대회 출전에 필요한 FIS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참여도 대폭 늘어났다.

불자선수인 설송 유해대 선수는 "해외 코칭이 없을 때면 틈틈이 상원사에가서 기도를 한다"며 "호산 스님이 아니었으면 이처럼 많은 보더들이 참가하고 즐기는 대회가 없었을 것이다. 스님 덕분에 한국 스노보드계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국내 최대 · 최장수 스노보드 대회
호산 스님 주축, 불교계 꾸준한 후원
올림픽 앞두고 국가대표 다수 출전
유소년 선수도 함께 타며 꿈 키워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스노보드 대회를 불교계가 여는 것은 미래세대 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을 짐작케 했다.

수원에서 온 도성 백종석 씨(40)는 "결혼하기 전부터 달마오픈에 참여했고, 그 인연으로 결혼했다. 불자인 아내를 만나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며 "아이가 생겨 현재 5살인데, 아이도 나중에 달마오픈에 참여했으면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함께 대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강원지역 사찰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평창 월정사 정념 스님을 비롯해 스님 10여 명과 신도 100여 명이 선수들을 응원했다. 보더들 사이에 스님들과 보살들이 많았지만 어색함은 엿볼 수 없었다.

또 스키장 한편에는 달마오픈을 후원한 사찰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같은 후원에 경기장 아래에서는 떡볶이와 오뎅 등 무료 분식이 제공되는 등 하나의 축제와 같았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동계올림픽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대회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바람도 담고 있다"며 "그동안 불교는 정적인 수행 위주였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움직이는 불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마오픈에 출전한 국가대표 김호준 선수는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힘을 내 꼭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경기장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재찬 스키연맹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회 중에는 호산 스님에 대한 대한체육회 공로패 전달도 진행됐다.

대회 후반 올림픽 코스를 타는 유소년 선수들을 향해 중계진은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는 경험이 이들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다. 이날 대회 후 아이들은 또 성장해 있을 것"이라며 "후원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품안에서 올림픽 꿈 키우길"

Interview
달마오픈 열어온 호산 스님



"불교의 품 안에서 꿈나무들이 꿈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미래세대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

경기장에서 만난 호산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스님의 스노보드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1995년 인근 스키장에서 무사고 기원 기도를 한 것이 계기였다. 스님은 스키장의 젊은이들과 인연을 맺었고, 이들이 대회를 열어달라고 하여 마련한 것이 달마오픈이었다.

현재 스노보드 달마팀을 만들어 꿈나무 육성에도 나서고 있는 스님은 "불자 수 감소 등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불교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스포츠와 문화 포교 등으로 젊은 불자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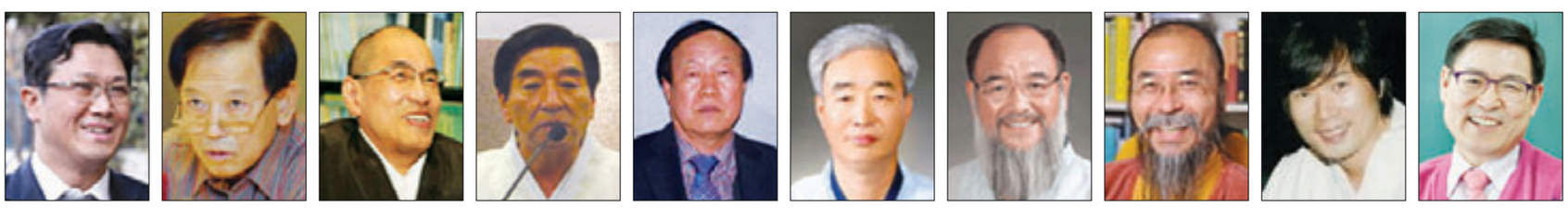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역학(易學),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진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된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역학 인재양성과정!!



■ 세상은 성실한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때를 알아야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기존 역학관련 상담 업에 종사하거나 제대로 된 역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제대로 된 궁합 및 인연법(콩까지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명쾌한 격용 분석방법/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과정!!
■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능력배양!!
■ 동양미래예측 최고전문가 및 교수요원 양성과정,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터까지 무한반복 학습가능>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을 최종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과정!!
※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입학식 3월 9일(목) 17:00 ~ **등록금** 1학기 240만원(필수), 2학기 168만원(선택)
일 정 3월9일 ~ 6월 22일, 매주목(木)18:40 ~ 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수료증 학기별 동국대 총장명의 수료증 및 명리 상담사 자격증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 1학기 수료 : FCA 동양미래예측 최고위과정 수료증 – 2학기 수료 :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증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 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불자교수들, 미래세대 포교에 힘모은다

교불련 30주년 앞두고 각종 사업 전개


2월 27일 열린 교불련 창립29주년 기념법회에서 참석한 불자교수들이 미래세대 포교를 서원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 번째가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다.

불자교수들이 교수불자연합회 창립 30주년을 기해 대학생을 비롯한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29주년 기념법회와 제3회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교수불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3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포교를 위한 대중포교지 발간,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등을 결의했다.

먼저 대학생들을 위한 대중포교지는 올해 총 3회 발간된다. 가장 먼저 8월 중 발간되는 〈전환기, 불교에게 길을 찾다〉(가칭)는 쉬운 불교상식과 이야기가 담긴다. 교불련은 9월 개강하는 새 학기에 이 책자를 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말 발간되는 2권은 1권에 비해 한 단계 심화된 불교 길라잡이 서적으로 각종 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중점으로 제작된다. 2018년 상반기에 발간되는 3권은 30주년 행사 결과 및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학생 포교지 연 3회 발간
대학불교네트워크 연내 구축
'전환기 한국불교' 심포지움도

이와 함께 교불련은 포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협의해 '대학불교네트워크'도 올해 안으로 창립하기로 했다.

또 6월 말에서 7월초 해남 대흥사에서 열릴 예정인 2017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특별세션 '전환기의 한국불교'도 마련된다. 올해 9~0월 중 '전환기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한 · 일 심포지움도 개최된다.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장은 "교수불자들이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세대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래포럼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강사로 나서 '붓다로살자, 신행혁신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 미래를 위한 대학생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했다.

지홍 스님은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한국불교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불교 인구가 300만명이 감소하여 2위 종교로 떨어진 현실"이라며 "기존 불교에 접근하는 신행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지성인들의 집합체인 교수불자연합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미래세대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가르침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법회 창립을 축하하며 공연을 펼친 봉은사 연화합창단 모습.

"전법 등불 밝히길" 봉은사 지역법회 창립

2월 26일 창립법회 봉행, 7개 지역 연등장 임명

강남 지역 포교 진흥의 구심점이 될 봉은사 지역법회가 창립됐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26일 경내 법왕루서 지역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400여 신도들은 이날 자리서 지역법회 창립을 자축하고, 지역법회를 통해 활발한 신행 및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최은주 봉은사 신도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지역법회는 이웃에 사는 도반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널리 권하고 권해 포교와 전법의 등불을 밝힐 터전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으로 비춰주사 봉은사 불자들의 새 출발을 호념해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억겁의 세월을 헤매도 만나기 어려운 귀한 불법을 만났으니 게으름과 교만함을 버리고 늘 공부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불퇴전의 신심으로 발심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지역법회는 지역별 도반모임으로, 지역법회 회원들은 이를 주축으로 신행 ·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그간 불교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수료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등'이 기초학당을 나오지 않거나 '연등' 활동을 하지 않던 신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 점을 보완, 신행 · 봉사활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봉은사 새신도 및 봉은법회 미활동 신도도 참여 가능하다.

앞으로 봉은사 한원덕 신도회장과 최은주 신도부회장이 각각 지역법회장 · 부회장을 맡아 활동한다. 이밖에 지역법회 각 연등장으로 △강남(연등장 이향숙) △서초(연등장 신동숙) △송파(연등장 유순자) △경기(연등장 오화란) △지장(연등장 조혜선) △문수(연등장 김미선) △직능(연등장 박민호) 총 7명이 임명됐다.

이날 원명 스님은 "강남 지역 포교를 위해 반드시 지역법회를 창립해야겠단 마음이었다. 오늘 첫 출발의 자리에 많은 신도들이 모인 걸 보니 더없이 기쁘다"며 "봉은사가 포교의 제1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법회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열심히 펼치며,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잘 따르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여성광장 위한 음악회 연다

여성개발원 2017 신년 계획

여성불자들의 쉼터가 될 회관 건립을 위해 불교여성계가 음악회를 연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2월 23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진행했다.〈사진〉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음악회를 10월 12일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불교여성광장은 불교여성 교육과 쉼터를 위한 1000여 평 규모의 공간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기금 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번 기금 모연 음악회를 위해 3월 13일 오후 4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한편, 제8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은 5월까지 사찰 및 교계단체, 기존 108인에게 추천을 받을 예정이며 2년 내 교계 언론과 DB를 검토해 6월 중 선정한다. 노덕현 기자



"막바지 추위, 따뜻하게 이겨내세요"

아름다운동행, 2월 27일 독거어르신 온수매트 지원

겨울의 막바지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2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자비나눔행이 펼쳐졌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온수매트 25개씩 총 50개를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온수매트는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아이연탄맨 캠페인 동참으로 이뤄진 것이다.

원스토어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 등을 통해 1181만 7100만원을 모연, 어르신 난방류 구입을 목적으로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원스토어 측은 "해피빈을 통해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알게돼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마련했다"며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2017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27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온수매트를 각각 25개씩 총 50개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온수매트는 종로구 쪽방촌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다.

앱 마켓 '원스토어' 후원
종로지역 50가구에 전달

전달식 후에는 종로구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의 독거어르신 가정에 온수매트가 전달됐다.

온수매트를 지원받은 이현구(75세) 씨는 "막바지까지 추운겨울에 이렇게 온수매트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금을 지원해 준 원스토어에 감사하다.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17년도 우리 사회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연탄맨 캠페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여성 만을 위한 3박 4일 사찰 쉼터

평창 월정사, 제3기 여성출가학교 개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3기 여성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출가학교는 3박 4일간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9일에는 입재식 및 108염주 만들기가 진행된다. 10일엔 전나무숲길 걷기명상을 비롯해 차향명상, 발우공양, 선재길 걷기, 성불도, 서로부처되기, 우리는 위로받아 마땅하다 등이 진행된다. 11일에는 특강과 전나무 숲길 삼보일배, 연꽃등만들기, 달빛포행, 스님과의 대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적멸보궁 참배도 진행된다.

신현임 월정사 출가학교 팀장은 "13년 간 출가학교를 운영해오며 주부들의 경우 한달 가량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합격해도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부 및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뎌진 오감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가져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33)339-6777

노덕현 기자



자주적 부처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④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 입구. 한끼 음식 이외에는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수행하는 무문관은 치열한 정진의 끝이다. 갇힘 안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인(眞人)이 되는 길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틀에 갇히지 않아

화두를 듣고 참구를 하다보면 순일무잡하게 정진이 계속 될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번뇌 망상에 시달릴 때가 있다.

이때마다 나는 〈임제록(臨濟錄)〉을 꺼내 읽는다. 첫째, 그의 일언일구에 정신이 번쩍 들고 메말라 있는 머리에서 맑은 영혼의 샘물이 솟는 신선함을 느낀다. 그는 화두를 통해 본질을 찾고 자아를 탐색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인식의 변화가 나를 새롭게 일깨우게 한다.

그의 법어는 평범하거나 진부하지도 않고 아울러 상식적인데 머물러 있지도 않다. 구절마다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하고 마치 몽둥이를 들고 영혼을 후려치는 것 같다.

그의 수행방법은 다른 선사들에 비해 거칠고 충격과 파격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 잠시도 곁눈질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는 기존의 가치에 얽매여 있는 것을 용납도 하지 않았고 모방과 흉내는 몽둥이로 후려 갈겨 버렸다. 그리고 눈앞에 드러나 있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처를 닮으려고 하거나 보살을 비롯한 일체 성자를 의존하는 무리에게는 영혼을 찢어지게 하는 천둥 같은 할(喝)과 주장자로 후려쳐서 눈을 열게 하고 귀를 번쩍 트이게 하였다.

한 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다. 마치 옆구리에 비수를 들어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레와 같은 할(喝)소리가 쏟아질 것 같다.

누구나 모방과 기존의 가치의 틀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임제(臨濟)는 부처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처는 내가 보기에는 한낮 냄새나는 존재요, 보살과 성인은 모두 사람을 결박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임제가 선(禪)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깨달음의 철학이다. 그는 보살과 성인을 가쇄(枷鎖)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이것은 사람을 결박하는 것들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부처에 집착하고 조사(祖師)의 가르침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귀가 번쩍 트이고 새로운 안목을 열게 하는 목소리이다.

수행자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고 고정된 인식의 틀에서 갇혀 있을 때이다.

그는 자주적 부처가 되어야지 부처나 성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로서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말라 보살과 아라한은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틀과 같고 사람을 속박하는 물건들이다' 라고 밝힌다. 그는 갇혀 있으면 나약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매순간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제는 몸소 체험하고 자유스러워지는 방법을 깨닫고부터는 반드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제는 다른 선사들과 달리 먼저 반드시 진정견해(眞正見解)를 갖추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밝은 지혜와 안목을 갖추게 되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자유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임제어록〉을 보면 그는 진부하고 상식적이거나 상투적인 것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어 하나하나가 도전적이고 파격적이다. 굳은살은 날카로운 비수로 잘라내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마조(馬祖)와 백장(百丈) 황벽(黃檗)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된 평상심(平常心)이나 마음이 곧 부처란 구호를 쓰지 않고 마음(心)이니 불(佛)이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일도양단 하듯이 전부 불식하고 무위진인(無位眞人)혹은 무의도인(無依道人)이란 말로 인간을 중요시 하는 선(禪)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존엄과 숭고한 인격을 갖춘 여래(如來)나 부처와 같이 이상적 인격이 지니고 있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찾고 깨닫고자 하는 것을 멀리서 구하지 않았다. 항상 자기 안을 살피고 성찰하면서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깨닫고자 했다. '그대들이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내 앞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

임제는 인간을 그대로 부처로 파악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음이니 불성(佛性)이라는 명칭을 사용치 않고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가 바로 부처라고 선언하고 있다. 〈임제어록〉에서 가장 돋보이는 구절은 다음 구절이다.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고 가고 머무는 것을 마치 옷을 벗었다 입듯이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을 알라.

정진 순일 못하면 〈임제록〉 읽어
임제 일언일구에 정신 번쩍 들어
파격의 禪語, 얽매임 · 안주에 경책
'살불살조', 극복해 나아가란 당부

그는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이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인다. 수만 가지로 응용하지만 응용하는 틀에는 얽매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찾으면 점점 멀어지고 구하면 어긋난다.'

수행인이 추구하는 개인적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해탈의 자유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법문을 듣고 깨닫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옛 선사들은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고 본래 면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임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자신을 살피라. 그것은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이 팔팔하게 살아 움직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구하려고 하면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임제는 그대들의 한 생각 한 마음이 결박을 이루기도하고 결박을 풀기도 한다고 수행자가 참구를 하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은 때로는 법계를 관통하기도하고 항상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고 삼계에 자유자재 한다.

임제는 인간 그대로 부처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와 조사(祖師)란 이상적 인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부처와 조사란 그들을 존경하여 붙인 이름' 이라고 밝히고 나서 '부처란 단지 이름뿐이다. 불시명구(佛是名句)' 라고 부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제의 서슬 푸른 직관과 안목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 격렬하고 살벌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읽는 사람의 막혀 있던 가슴을 뻥 뚫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충격과 신선함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하고 있다.

'깨달음의 견해를 터득하려면 부처와 조사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살과 성인(聖人)에게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주적 부처를 방해하는 것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여라 끄달리지 말고 극복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성자를 만나도 죽여라.'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의미는 죽이라는 살생의 의미가 아니라 극복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 그리고 성자라도 극복 하라는 의미이다.

그는 찾고 깨닫고자 하는 시선을 자기 내면을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자세히 관찰하면 몸 안에 부처가 직립해 있음을 깨우쳐 주고 정진을 통해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부처를 증득해야 한다고 그의 어록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임제선사의 어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처란 단지 이름뿐이고 불시명구(佛是名句) 부처와 조사란 말은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제는 자기면목을 드려내기 위해 불타(佛陀)나 보살에 의존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부처를 냄새나는 존재라고 폄하하고 보살과 성자를 목에 씌우는 형틀이요 손발에 채우는 형틀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것이라고 서슬 푸른 직관을 드려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깨닫기 위해서는 부처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의존함을 버려야 하고 올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성인이나 조사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끄달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혹되고 끄달리는 것을 '인혹(人惑)' 이라 하고 상대방에 맞추어 변해가고 모방하는 것을 '의변(依?)' 이라고 체험적 깨달음의 인식을 드려내고 있다. 그리고 소리와 명구(名구)를 모두 의변(依?)이라고 밝히면서 의변이나 인혹으로 인해 선(禪)의 창조적인 행위가 방해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정의(淸淨依), 무생(無生), 열반(涅盤) 등의 표현이 임제의 눈에는 소리와 명구에 불과했으며 의변(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다.

조주(趙州)선사도 일찍이 보리(菩提), 열반(涅槃), 진여자성(眞如自性) 등은 모두 몸을 편안히 하는 의복에 불과하고 번뇌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임제의 어록은 깊은 통찰력과 직관이 담겨 있지만 논리적이지 않고 문장이 유려하지도 않다. 미사어구도 없다. 투박하고 거친 표현들이 군데군데 있는가 하면 구절마다 영적(靈的)기품이 담겨있다.

다른 선사들의 어록에서 볼 수 있는 경전의 인용도 그리 많지 않고 독창적인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이 돋보이고 있다.

그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란 표현 외는 마음이 부처니 평상심이 그대로 진리란 말을 진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부처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고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수만 가지로 응용하는 무위진인을 깨달으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갇히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 자주적 부처는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대출력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신상품 ● USB · MP3 P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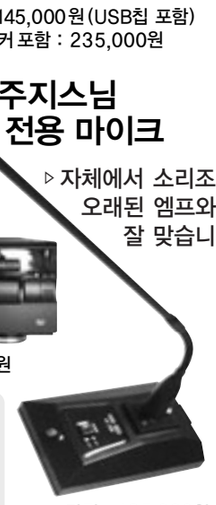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가격 : 18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쿠시나가라 열반당의 붓다 열반상.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에서 붓다상에는 평범함 속 비범이라는 또 다른 위대함이 담겨있다.

열반, 붓다가 설한 '無相之相' 설법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④ 쿠시나가라의 열반상

걷는다. 마지막 길이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길을 걸었다. 이제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길을 걷는다.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내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과 가까운 북으로 발길을 돌린다. 바이샬리성 근처의 한 마을에서 머문다.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 걸식조차 어려울까. 붓다의 마지막 길. '열반'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린다.

"나는 지금 병이 나서 온몸의 아픔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서 없는데 열반에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대중이 모이기를 기다려 열반에 들리라. 나는 힘써 정진함으로써 선정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병을 이겨내고 목숨을 이으리라." 〈유행경〉 中

아난다는 스승에게 질문했다. 열반 이후 승단을 위한 지침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붓다는 "나는 이제까지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설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은 낡은 수레와 같다고 했다. 진리의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고도 일렀다. 바로 사자후 한 말씀.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않으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 나의 제자요, 이 승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이다."

스스로의 등불, 이 보다 훌륭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자등명(自燈明),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말이다. 하지만 길 위에서 길이 어디냐고 묻듯, 손에 등불을 쥐고서도 등불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들. 아, 등불은 어디에 있을까.

쿠시나가라(Kusinagara). 도보의 종점.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붓다의 80년 평생은 그렇게 마감되었다. 쿠시나가라, 열반의 땅이다. 현재 카시아라 불리는 조그만 마을이다. 나는 쿠시나가라에서 살짝 실망을 안은 기억이 있다. 주위 환경이 생각보다 허전했기 때문이다. 기념비적인 건조물.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한다. 특히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은 압도적인 그 뭔가를 기대한다. 나그네는 '감동'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나는 쿠시나가라에서 감동은 커녕 허전한 분위기만 안아야 했다. 폐허였다.

당나라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쿠시나가라 서북쪽 강을 건너면 사라나무 숲 속에 열반상이 있는 집이 있다고 했다. 아쇼카왕 석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폐허로 변했다. 13세기 무슬림 침입은 모든 것을 재로 바꾸었다. 폐허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그리고 1956년 미얀마 스님들에 의해 열반당이 세워졌다.

가지런하게 정렬된 초석의 건물터 뒤로 특이한 형식의 대열반당이 있다. 복발형 스투파의 수직성과 기다란 원통형 지붕의 수평성. 수직과 수평으로 조화를 이룬 건축. 직선 구조의 건물 터의 붉은색 벽돌과 곡선 지붕의 하얀색이 대비되는 독특한 분위기이다. 대열반당 안에 들어가면 붓다의 열반상이 모셔져 있다. 원래 이 열반상은 1876년 부서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반상은 5세기의 하리발라라는 불자가 봉헌했다는 명문을 지니고 있다. 열반상. 사실 불교계는 붓다의 열반을 비중 있게 다룬다. 쿠시나가라의 열반상은 세계의 불자들을 이끄는 성지가 되고 있다.

대열반당 안에 들어가면 열반상과 마주할 수 있다. 길이 약 6m의 대작이다. 붓다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몸을 서쪽으로 비스듬히 눕혔다. 참배자들은 열반상 주위를 돌면서, 혹은 무릎 꿇고 앉아서, 마치 붓다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경배를 올린다. 세계 도처에서 온 불자들. 그들의 피부와 옷차림은 달라도 불법 아래 합장한 모습은 같았다. 더군다나 나의 눈길을 강하게 끈 것은 바로 가사 갈아입히기, 바로 그것이었다. 각 신행 단체들은 순서를 기다려 새로운 가사로 불신(佛身)을 덮었다. 그래서 열반상은 머리와 발 부분만 겉으로 들어 낸 모습을 보였다. 그건 그렇고, 어찌하여 붓다는 이곳에서 누워있을까.



쿠시나가라 열반당의 전경.

붓다의 발걸음이 멈춘 열반처
평범하지만 위대하였던 마지막
現 열반당 복원돼 열반상 봉안
자연스런 성인의 모습에 '감동'
한국 불상엔 왜 열반상 드물까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에 이르는 길. 붓다는 파바 성에서 마지막 공양을 받았다. 공양을 올린 이는 춘다, 바로 대장장이 아들이었다. 춘다는 진귀한 전단나무 버섯 요리를 올렸다. 이를 든 붓다는 버섯음식을 다른 수행자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 독버섯이었다. 춘다의 버섯음식을 든 붓다는 배의 통증을 심하게 겪어야 했다. 설사와 하혈까지 하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붓다는 춘다의 공양으로 죽음에 이르면서도, 춘다를 꾸짖지 말라 했다. 최상의 공덕은 깨달을 때와 열반에 들 때 공양을 올린 것이라 강조했다. 때문에 춘다의 공양도 공덕이 있는 것이라 했다.

나는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상을 돌면서, 춘다를 생각했다. 이승의 붓다께서 든 마지막 공양, 그것은 춘다의 공양,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춘다는 대장장이의 아들이다. 그는 왕후장상이 아닌 세속의 평범한 사람이다. 춘다의 공양. 최상의 음식을 만든다고 만든 것이 하필이면 독버섯 음식일까. 이 말은 평소 집에서 먹지 않았던, 그러니까 매우 귀하게 여긴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의미이다. 평소 잘 들었던 음식이라면, 그러니까 춘다의 집이 부잣집이었다면, 독버섯은 피했을 것이다. 붓다는 이런 사정을 이미 알고 다른 수행자에게 버섯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을 것이다. 평범하게 이승을 마감하는 모습, 뭔가 생각하게 한다. 더군다나 붓다께서 열반에 이른 장소 역시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사라쌍수의 평범한 길이었다. "북쪽으로 머리를 향해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잠자는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러니까 붓다는 비스듬히 누워서 생애를 마감했다. 좌탈입망(坐脫入亡)도 아니고, 무슨 이적(異蹟)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다. 붓다는 수바드라에게 말했다.

"나는 스물아홉에 도를 찾아 출가했으니, 이제 출가한지 50년이 넘었구나.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홀로 깊이 생각하고 닦았노라. 이제 법의 핵심을 설했으되 그 밖에는 사문의 전실한 길이 없노라." 〈대반열반경〉 中

지혜의 수행을 홀로 닦았다는 것. 비록 붓다는 누워서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들은 이 거룩한 순간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그때엔 꽃이 필 시기가 아님에도 갑자기 두 그루의 사라나무는 가지마다 일제히 꽃을 피워 부처님의 몸 위에 뿌렸다. 그러자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인 팔부 대중들이 허공에서 온갖 미묘한 꽃을 비 내리듯 했으며, 하늘에서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부처님을 찬탄했다."

붓다는 평범하게 열반에 들고자 하나 하늘과 땅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꽃비가 내리고 풍악이 울렸다. 붓다의 마무리는 평범함, 그 자체였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의 평범한 죽음. 나는 쿠시나가라에서 이 평범함 속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았다. 특히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 평생 수행하면서 정각에 이른 성인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자연스런 모습. 나는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에서 붓다의 또 다른 위대함을 생각했다.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할까. 그나저나 무엇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열반상을 볼 수 없을까.

많고도 많은 불상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나는 이런 의문을 놓지 않았다. 열반의 상징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한다면, 당연히 열반상은 숱하게 조성되었을 것이다. 탄생불은 많아도 열반상은 없는 나라.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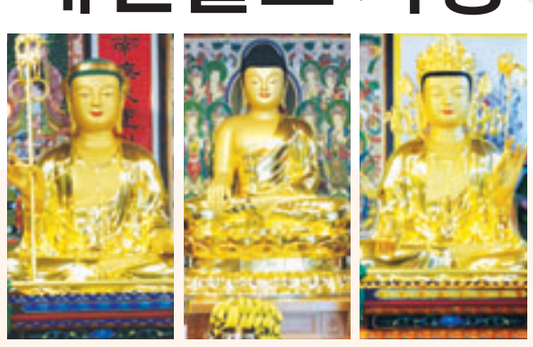
나는 〈대반열반경〉 제36권 마지막 법문을 음미한다. 붓다의 그 법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한량없는 항하사 중생들이 성문의 마음을 내었고, 세간의 여자와 천상의 여자 2만억 명이 몸을 변하여 남자의 몸을 얻었다고 했다. 그 때 붓다는 '모양이 없는 모양(無相之相)'에 대하여 법문을 내렸다. 과연 무상지상은 무엇인가.

"선남자여, 온갖 법이 제 모양도 없고 남의 모양도 없고, 저와 남의 모양도 없고 인이 없는 모양도 없으며, 짓는 모양도 없고 받는 모양도 없고, 짓는 이의 모양도 없고 받는 이의 모양도 없으며, 법의 모양도 없고 법 아닌 모양도 없으며, 남녀 모양도 없고 장정 모양도 없으며, 〈중략〉 있는 모양도 없고 없는 모양도 없으며, 나는 모양도 없고 내는 모양도 없으며, 인(因) 모양도 없고 인의 원인 모양도 없고, 과(果) 모양도 없고 과의 결과 모양도 없고, 낮과 밤의 모양도 없고 어둡고 밝은 모양도 없으며, 보는 모양도 없고 보는 이 모양도 없으며, 〈중략〉 선남자여. 이런 모양들이 멸한 곳을 진실한 모양이라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온갖 법이 모두 헛된 가짜이거든, 그것이 없어진 데를 참이라하나니 이것을 실상(實相)이라 하고, 법계(法界)라 하고, 〈하략〉"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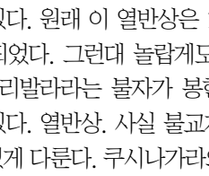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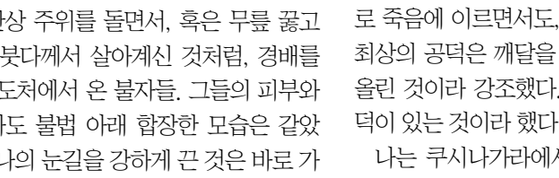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진액 하수오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절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사) 대리점모집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웅 합장

“인도불교, 한반도 직접 전래 가능했다”

김해 여여정사, 2월 25일 가야문화학술대회

한반도 불교 전래설 중 정설은 인도와 중국을 거쳐 불교가 들어왔다는 ‘북방전래설’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을 통해 불교가 전래됐다는 ‘남방전래설’도 있지만,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불교가 해양을 통해 전래됐다는 ‘남방전래설’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와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는 2월 25일 여여정사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탐색’을 주제로 제2회 가야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반도 불교 남방전래설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고다비리샤 미슈라 인도 마드라스대 교수는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불교 전래 경로’ 발제를 통해 “이미 삼국의 승려가 4세기에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인도로 왔던 기록이 있는 만큼 인도서 한반도로 불교가 직접 전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야의 쌍어문이 타밀나두 주 빤디아 왕국의 상징인 점과 한국과 인도어의 유사점을 든 미슈라 교수는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고대항해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인도에서 인도차이나, 중국, 가야로 이어지는 불교 해상 전래 루트도 가능하고 존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전래설 의미 · 가능성 모색
불교 전래 문화교류사 관점서
‘종합문화체’로 이해 · 연구돼야
6가야 분리, 전래사 접근 필요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가야불교 남방전래설의 재검토’ 발제에서 가야불교를 크게 아가야와 금관가야, 대가야로 구분해서 ‘남방전래설’을 고찰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가야는 여섯 가야의 연합체이지만,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아라가야와 금관가야, 대가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맞다”면서 “아라가야는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대가야는 백제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두 가야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였다”고 설명했다.



김해 여여정사와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2월 25일 여여정사에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해양불교 전파의 모형탐색’를 주제로 제2회 가야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금관가야는 허왕후와의 출자나 아유타국, 파사석탑 등의 기록을 통해 남방불교와 해양불교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 교수의 주장이다.

고 교수는 “금관가야 8대 질지왕이 시조와 시조모인 수로왕과 허왕후를 기념해 세운 최초 사찰과 왕후사는 불교의 수용 문제에 있어 해양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금관가야 불교는 남방불교와 해양불교의 접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거룡 선문대 교수는 ‘한국불교남래설 고찰’ 발제를 통해 불교 전래는 문화교류사적 입장에서 고찰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허왕후 이전에 가야에 불교가 전래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인도의 밧뜨(S.R Bhatt)교수의 “가야불교는 기원전 1세기 이전에 해상경로를 통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민간 차원의 전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밧뜨 교수는 “인도의 어떤 왕도 자신의 딸을 일면식도 없는 왕과 결혼시킨 적이 없다. 수로왕과 허왕후가 결혼한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사회 · 문화적 교류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불교가 이전에 가야에 전래됐음을 주장한바 있다.

이 교수는 ‘가야’는 남인도와 네팔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를 의미하고, 수로왕의 이름은 통치자와 영웅을 의미하는 범어 ‘슈라(sura)’의 음차임을 언급하며, 두 국가의 교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허왕후가 들어오던 시기 가야지역에 인도문화의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두 왕국 사이에 긴밀한 접촉, 개인적 교우관계, 사회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밧뜨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는 일종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전래과정에 대해서는 문화교류사적 입장서 고찰돼야 한다”며 “불교를 하나의 ‘종교적 종합문화체’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서 설화는 어떻게 수용됐나

불교학연구회 · 동악어문학회 3월 11일 춘계 학술대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설화는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알아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과 동악어문학회(회장 윤재웅)는 3월 11일 오전 9시 동국대 학림관 111호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설화적 상상력’을 주제로 춘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경순(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1930년대 중반 불교계의 〈금강산〉잡지 발간과 의의 △김명미 · 윤재웅(동국대)의 서정주 문학의 지귀설화 수용 양상 △김승호(동국대)의 ‘불연처(佛緣處) 만들기의 설화적 맥락과 의미-〈고기(古記)〉 설화를 중심으로’ △최귀목(고려대)의 ‘신본불적(神本佛迹)의 상상력’ △청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의 ‘〈삼보감응요약록(三寶感應要略錄)〉의 동아시아 전승과 지장신앙’ 등이 주제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삼국시대 조각, 의의 커”

삼국시대에 조성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 및 석조여래입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삼존, 대좌를 모두 환조(丸彫)에 가깝게 표현했다. 현재 왼쪽 협시 보살상은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 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했다. 특히, 대좌의 양쪽 측면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호위하고 있는 사자좌(獅子座)는 삼국 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 형식으로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 여래삼존상은 6세기 중엽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가장 귀중한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면서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 시대 조각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최석정 초상 및 함’, ‘신여량 상가교서’, ‘신여량 밀부유서’ 등도 보물 지정예고됐다.


보물 지정 예고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비구 · 비구니 장로 오도송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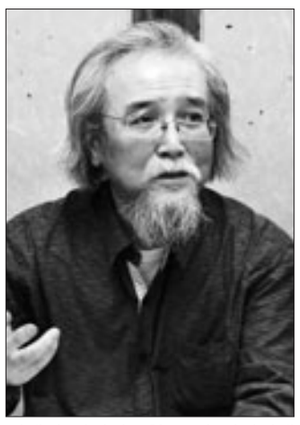
전재성 빠알리성전協 회장 테라가타 · 테리가타 완역해

세계 최초로 완역, 성과 커 불제자들 깨달음 노래 ‘눈길’

선승이 자신의 깨달은 바를 시로 읊은 것은 오도송(悟道頌)이라고 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제자들도 자신의 깨달음을 시(詩)로 표현했다. 이를 모아 놓은 것이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이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남방 상좌부 경전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과 〈장로니게경〉으로 알려져 있다. 두 경전 모두 부처님 재세 당시 비구 · 비구니 장로들의 출가 · 수행 과정, 깨달음이 게송으로 남아있다.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는 1889년 처음으로 독일의 노이만에 의해 간략한 주석과 더불어 번역됐고, 1913년 영국 리스 데이비즈 부인에 의해 간략한 현생 인연담과 함께 발간됐다. 이후 영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나왔지만, 완역되지는 못했다.


전재성 회장이 2월 28일 간담회에서 〈테라가타〉 · 〈테리가타〉 완역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지난해 12월 〈테라가타-장로게경〉을 완역한데 이어, 최근 〈테리가타-장로니게경〉을 완역 · 발간했다. 〈테라가타〉에만 비구 장로 260명의 오도송 1291수, 〈테리가타〉에는 비구니 장로 102명이 읊은 522수의 오도송이 담겼다.

이번에 내놓은 〈테리가타〉는 비구니 장로들의 출가수행기이면서 깨달음의 오도송이기도 하다. 수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비구니들의 노래만을 담은 경전은 극히 드물다. B.C 3세기경 메가스테네스는 저서 〈인도지〉에서 “인도에는 여성철학자들이 있어 남성과 난해한 것을 당당히 논의한다”고 기술돼 있다. 여기에 나온 여성철학자들이 〈테리가타〉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매일 3백개의 창으로 몸이 찔리고, 1백년을 살해되도, 괴로움이 종식된다면 그것이 낫다’고 고뇌하면서도 난관을 벗어나는 상황을 ‘희열과 행복이 나의 몸에 스며들었다. 어둠의 다발이 부서졌다’고 노래한다.

전 회장은 “부처님의 최초 제자들인 비구와 비구니들이 어떤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고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전”이라며 “〈테리가타〉는 2500년 전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데도 중요한 문헌”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3월 해빙기 맞아 문화재 안전진단

3월 해빙기를 맞아 중요 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해빙기를 맞아 지정문화재 1,901개소와 4대궁 · 종묘 · 왕릉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문화재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 진단하는 예방활동으로 이번 진단 대상에는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주된 진단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물의 작동기능 상태 △봄철 해빙기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재 변형 여부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급성과 내용 등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수 · 보강 등이 시급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해빙기 문화재 안전진단을 통해 드러난 위험 사항은 즉각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5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기초범패 – 소리과정** (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기본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 과정

■ **기초작법 – 무용과정** (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전문과정** (매주 수요일) : 기초과정 수료자(동 자격을 갖춘 분) – 영산재 전 과정 소리 및
(오후 2시 ~ 4시) 작법무(바라무 · 나비무), 화청(회심곡)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전문과정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기초과정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FAX : 032)529-6709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른 신앙이 꽃으로 피길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불교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3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조사 방식 등에 의문부호를 던지며 개운치 않는 반응을 보여 왔다.

통계청 발표대로 10년에 300만의 불교인구가 줄어든 것이라면 일 년에 30만 명씩 줄어든 셈이다. 내가 머무는 익산시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고 인근의 군산 인구가 30만 명에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한 해에 한 지역의 전체 인구가 불교 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이다. 만일, 이런 하향곡선으로 이어지는 불교인구가 감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불교계의 미래는 어둠의 그림자를 더욱 진하게 남길 터이다. 통계청의 통계 잘못만을 지적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자성(自省)의 대비책이 강구 돼야 할 것이다.

우선은 한국 불교의 현 주소를 조명해 과감한 풍토개선과 바른 신앙에 대한 개혁의 실천의지를 되살려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 한 종교가 아니다. 현생(現生)의 종교이다. 지나간 어제와 다가올 내일의 종교도 아니다. 오늘의 종교이다.

동·서·남·북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방, 팔방이 열리는 것이다. 임제선사의 말씀처럼 나는 어느 곳에 있어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에겐 변두리도 모서리도 없는 것이다. 나의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르는 곳마다 정토세계(淨土世界)인 것이다. 나는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아닌 인사이더의 주인공으로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열린 내 자신이 부처인 것이다. 불교의 연기법칙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 돌연변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네 탓이 아닌 나의 잘못이며 곰곰이 살펴보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감사와 고마움, 미안함이 삶의 풍요를 더욱 아름답게 키워 나갈 터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生)·주(住)·이(離)·멸(滅)하고 성(成)·주(住)·괴(壞)·공(空)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브라흐만(Brahman)을 인정할 수 없고 영원불변한다는 아트만(Atman)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불자 인구 감소, 바른 신앙 없기 때문
心本主義 기반한 생활불교로 변화해야

육도윤회 또한 사람은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될 수 있듯 살아서 축생도 되고 배고픈 아귀도 되며 타는 목마름의 지옥도, 행복 충만한 극락도 번갈아 가며 겪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현생에서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신앙은 사닥다리에 오르듯 시야를 넓히는 종교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학문수행과 심성수행(心性修行)을 게을리 하지 말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경전중심, 설법중심보다 목탁중심의 의식불교(儀式佛敎)로 치닫는 게 문제이다. 무당의 짓거리와 승려의 행위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사찰경제를 앞세운 신앙의 흥정놀음이 사라져야 불교의 미래는 밝을 터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선 오늘의 참 주인공으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일 수 있게 불자(佛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바른 불교, 바른 신앙이 꽃으로 피길 바랄 뿐이다.

생명력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화가 으뜸 덕목이 되어야 한다. 경전의 중심사상인 중도(中道)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연기법칙(緣起法則)의 바른 이해로 삶의 현장에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생활 불교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가야 한다.

불교는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Messiah) 중심의 신본주의(神本主義)의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심본주의(心本主義), 깨달음의 종교이며 자력신앙(自力信仰)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오늘의 종교임을 알려가야 한다.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여섯 가지 바른 길인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과 정진(精進),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의 실천 덕목의 의미를 일깨워 줘야한다.

해탈자의 열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정견(正見), 정사(正思),정어(正語), 정업(正業),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의 영원한 진리, 팔정도(八正道)를 펼쳐 오늘의 참 주인공이 되도록 논리와 표현을 갖춰 설법해야 한다. 불교는 전생이나 내생을 위

깨달음은 모두 마음서 나온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당나라 현종 때 사공산(司空山) 무상사(無相寺)에 본정(本淨) 선사가 주석하고 있었다. 한 번은 왕이 중사(中使)인 양광정(楊光庭)을 산으로 보내 산춘등(常春藤)을 캐어 오게 했다. 양광정이 산에 와 지나는 길에 절에 들려 본정 선사를 뵙게 됐다. 그가 절을 하고 물었다.

"제가 도를 사모한지 모래입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로써 가르쳐 주십시오."

본정 선사가 대답했다.

"천하 선종의 석학(碩學)들이 모두 장안으로 모이니 천사(天使)께서는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물을 수 있을 것이오. 나(貧道)는 산수에 의지할 뿐 마음을 쓰는 바가 없소."

광정이 더욱 간절하게 다시 절을 하였다.

"나에게 절을 하지 마시오. 천사는 부처를 구하는거요, 아니면 도를 구하는거요?"

"제가 우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와 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 부처를 구하고 싶다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만약 도를 알고 싶다면 무심(無心)이 곧 도라오."

"어찌하여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까?"

"부처는 마음으로 인하여 깨닫고, 마음은 부처로서 드러나는 것이니, 만약 무심을 깨달으면 부처도 있지 않다오."

"어찌하여 무심이 곧 도입니까?"

"도는 본래 마음이 없어서 무심을 도라 하니 만약 무심을 요달하면 무심이 곧 도라오."

광정이 가르침을 받고 절을 하고 나갔다.

대궐에 돌아온 뒤 광정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광정에게 본정 선사를 불러들이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선사가 장안에 이르자 백련사에 머물라는 조칙을 내렸고, 이듬해 선교 양가의 명승과 석학들을 내도량으로 부처의 법을 선양(宣揚)하게 하였다.

그때 원(遠) 선사라는 이가 큰 소리로 본정 선사에게 말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종지를 비교하고 헤아리고 있으니 마땅히 곧바로 묻고 곧바로 대답해야지 번거롭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선사가 보는 바로는 무엇을 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했다.

"무심이 도입니다."

'원 선사가 다시 말했다.

"도는 마음을 인하여 있거늘 어찌 무심을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마음을 인하여 도라 이름 하오. 마음이란 이름이 만약 있는 것이라면 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지만, 마음을 궁구하면 본래 있지 않은 것이거늘 도가 무엇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리오. 두 가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임시로 세운 이름일 뿐이요."

"선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음을 보는 것이 도입니까?"

"산승에게는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오."

"아까는 무심이 도라 하시더니 이제는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하시니, 어찌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까?"

"무심이 도라면 마음이 없어질 때 도도 없어지는 것이니, 마음과 도가 하나와 같기 때문에 무심이 도라 하였고, 몸과 마음이 본래 도라 함은 도도 본래 몸과 마음이니, 몸과 마음이 본래 공했으므로 도 역시 근원을 궁구하면 있지 않은 것이오."

"선사의 몸을 보건대 몹시 왜소한 데도 이런 이치를 아시는군요."

"대덕은 다만 나의 모습 만을 볼 뿐 나의 모습 없음은 보지 못하는구려. 모습을 보는 것은 대덕의 소견일 뿐이요. 경에 말하기를 '무릇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닌 줄을 보면 즉시 그 도를 깨닫는다' 고 하였으니 모습을 진실이라 여긴다면 겁이 다하도록 도를 깨닫지는 못할 것이오."

"이제 바라건대 선사께서는 모습 위에서 모습 없음을 설해 주십시오."

"〈정명경〉에 말하기를 4대(四大)에 주재자가 없고 몸 또한 나(我)도 없고 내 것(我所)이라는 소견도 없어야 도와 더불어 상응한다 하였는데 대덕이 만약 4대에 주재자가 있다고 여기면 이는 내가 있음이요, 만약 나라는 소견이 있으면 겁이 다하여도 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이상과 같은 대화가 〈전등록〉 5권에 수록돼 있다. 부처를 구하지 말고 도를 구하라는 뜻이다.

유정 분별 여의는 것, 깨달음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⑩ 유정과 무정의 불성

지난날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깨달을 수 있는가' 란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들에게 가져 올 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불성의 여부와 깨달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생에는 유정중생, 무정중생, 무색중생(無色衆生)이 있으며, 유정중생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정이 있는 중생을 말하고, 무정중생은 산, 강, 나무, 돌 등 정이 없는 중생이며, 무색중생은 물질이 없고 생각만 있는 중생을 말합니다. 무색중생에서 무색(무색)이란, 물질이 본래 없거나 물질이 없어져서 무색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 고 하는 우리들의 분별의 생각이 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무색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닌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불성, 에너지, 마음이라고 하며, 또한 깨달음을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 어떤 분별도 없습니다.

불성은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중생이 한 마음이고,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일체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성을 알고자 한다면 '불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분별을 여의는 것이 불성이고, 우리들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하는 망념을 여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하택신회 선사는 "깨닫는 성품이 있는 것이 유정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유정은 깨달을 수 있고 무정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물인 사람과 무정물인 나무는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유정인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고, 무정인 나무는 분별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회 선사가 말한 유정의 깨닫는 성품이란, 미혹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고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단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망념을 일으키므로 망념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째서 분별망념을 일으키고, 미혹하며, 고통에 떨어지는가?

항하사와 같은 분별의 이분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바르게 보아서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 분별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미혹하지 않으며, 고통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깨끗하다' 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들은 '깨끗하다는 생각이 생겼다' 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생각은 스스로 생기거나 있을 수 없고, 오직 더러운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있을 수 있으며, 더러운 생각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하며 인연에 의해서 어울린다' 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없으면 깨끗한 마음도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대상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진공, 없는 것도 아닌 묘유가 됩니다. 서로 융통하여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은 서로 같은 뜻, 즉 한마음이므로 서로 생기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쌩뚱! 맞은 소리!

소리공학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법당들의 소리는
심오한 염불정서와 전혀 다른 쌩뚱맞은 소리로! 이런 소리에 내 염불을
실림으로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림에서 목이 가고 수 만번
반복 속에 만성피로에 젖어듬에도 원인조차 모른체
참으로 힘들게 염불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

법당소리 비교시 놀랍도록 선명한 소리의 차이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말없이 쌔엥! 가버리는 이유는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지만 어마! 어마! 한
소리의 차이를 잊지않고 고민이 정리되면 반드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앰프 다루기 1초! 고장도 없지만 지금은 A/S가 부실하면 문을 닫는 시대!
토탈시스템 완벽시설후 귀 법당 기존 시설의 평균 절반가격 할부가능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은 각종 제품이 다 있으니 소리구경 하세요!

☎ 055) 343-1191, 010-9471-2026
(주)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소리공학 저서)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3.1운동 주역, 범어사·불교학교 학생들 기리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3.1운동 기념행사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 이하 연합신도회)가 1919년 3.1 부산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이 범어사 내 불교학교 학생 41명과 불교계 지도층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속 호국불교를 적극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연합신도회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미년 3.1운동 당시 부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부산불교계와 범어사 내 명정학교 학생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헌향과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했으며 독립선언문 낭독과 기념사, 축사, 삼일절 노래 합창, 만세 삼창 등 순으로 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원타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원타 스님은 "1919년 3월 1일 온 국토가 태극기로 물들고 목소리 높여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숭고하게 받들어 어렵고 힘든 현재 시국을 희망으로 헤쳐 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대성 회장은 "어느 젊은 불자가 독립운동 역사 가운데 불교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다. 독립운동 한 불교지도자와 학생들의 역할이 이미 역사서 검증 되었음에도 알리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서울에서 열린 후 부산에서는 3월 18일 날 열렸다. 오늘 우리 앞에 위치한 이 범어사 유공비가 스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출발한 지점이었다"고 유래를 설명했다.

이어 "서슬 퍼렇던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대한독립을 위해 우리 부산불교계가 앞장섰던

독립운동 출발한 유공비서

만세운동 재현 '애국불교' 강조

범어사 및 명정학교 학생들

호국정신 선양 "높이 받들 것"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신도회는 앞으로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회원 뿐 아니라 종립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태극기 행진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촉구할 방침이다.

1919년 3월 18일 열린 만세 운동은 불교계 지도층이 배후 비밀참모로 활동하고 당시 범어사 내 보통학교과정인 명정학교와 고등보통학교과정인 지방학림 소속 학생 41명이 주동한 학생의거다. 18일 밤 동래 읍 서문 근방에서 의거를 시작해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동래시장을 거쳐 남문에 이르기 까지 행진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19일 오전 허영호 · 이영우 · 황학동 · 윤상은 등은 허영호가 쓴 '한번 죽음은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격문을 만들어 군중들에게 배포했다. 오후 5시경에 동래 시장 남문 부근에서 시위를 전개하여 동래 경찰서로 돌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총을 쏘며 저지했고 주동자들을 체포했다.

이 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은 33명이며 그 가운데 31명은 6개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또한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은 재학생들의 만세시위사건 참가로 인해 일제로부터 1919년 3월 31일 폐교됐다. 1921년에 범어사 사립명정보통학교는 운영난으로 공립청룡보통학교에 병합되었다가 1926년부터 해방 전까지 금정불교전문강원으로 존속했다. 해방 이후 1950년에 금정중학교로 명칭을 바꿔 현재 종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유공비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1995년 3월 1일 금정구에서 건립했다. 유공비 옆면에는 만세 운동을 주동한 학생 41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금강불대, 후학 위한 교육지원금 전달

2월 26일 수료생들 십시일반 모아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수료생들이 성금을 모아 후학 양성을 기원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천태종 삼광사 부산금강불교대학(학장 세운)은 2월 26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2016년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불교학과 87명과 교법사 48명이 수료했다. 특히 수료생들은 학기 기간 배운 바를 실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각 300만원씩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부산금강불교대학 학장 세운 스님(삼광사 주지), 수료생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학장 세운 스님은 훈사를 통해 "지금까지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배웠기에 이제부터 실천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부처님 법을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금강불교대학 졸업생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금강불교대학에서 배운 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보이는 모든 것을 진리의 실상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제불보살의 숨결로 느낀다면 반드시 성불에 도달할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복차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

2월 26일 울산사회복지모금회에 2000만원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통도복차(福茶)'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했다.〈사진〉

통도사는 2월 26일 설법전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통도사가 진행한 '통도福茶, 복나누기 행사'에서 마련했다. 기부금은 저소득 생계 의료비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지 영배 스님은 "많은 분들이 동참한 성금이다. 동참하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길 바라는 심정으로 행사를 열었다"며 "행복은 나눌수록 더욱 더 커진다. 주시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큰 금액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국정사, 교육관 개관 및 본존불 점안

"불교대학 통한 전법도량으로"

부산 불국정사(주지 지장)가 2월 26일 교육관 개관 및 본존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앞으로 불국정사는 교육관에 강의실을 꾸리고 불교대학을 운영, 전법을 통한 포교를 펼칠 것을 밝혔다. 교육관은 실평수 175㎡로 1층 주차장과 2층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됐다.

정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귀의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국정사는 "부산 용호동 지역에서는 불교대학을 찾기가 어렵다. 이번 교육관 불사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불교대학을 통해 많은 불자들이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자산 623억 달성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 자산 623억 원을 달성했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원각)은 2월 25일 대구프린스호텔 5층 글로리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덕현 스님은 우수조합원 이종수 외 4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사에서 덕현 스님은 "1987년부터 어렵게 성장해 온 오늘의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대에 조합원의 지혜로 지역서민의 살림에 관심을 두고 알뜰히 꾸려나가자"고 인사했다.

문종래 신임 이사장은 "이날까지 우리 신협이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정유년에도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 본회의서는 2016년도 사업실적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서, 표준정관개정, 임원선출 등의 건들이 승인됐다.

한편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1990년 8월 가칭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후 2000년 10월 자산 100억 원 달성, 2017년 600억 원 자산을 달성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100일 기도 공덕 사회에 나누길”

무등산 원효사, 100일 기도 회향 기념법회

광주의 대표적 전통도량 무등산 원효사가 신임주지의 취임과 함께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원효사(주지 해중)는 2월 26일 대웅전에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일 신중기도’ 회향을 맞아 법회를 봉행하고, 신임주지 취임 인사의 말을 전했다.


원효사 100일 기도 회향법회서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이날 100일 기도를 회향한 신임주지 해중 스님은 주지 취임 후 바로 100일간 신도들과의 기도를 봉행해 첫 대중법회와 기도회향을 맞았다.

해중 스님은 신도들과의 인사를 통해 “백일기도를 맞아 은사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회향하게 돼 감사하다”며 “그동안 100일 신중기도가 신도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 원만히 회향됐다. 앞으로 원효사가 예전의 모습을 빨리 회복해 참수행 도량을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묵 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100일 신중기도 회향을 축하하며, 이번 기도는 같이 공덕을 나누는 회향”이라며 “신임주지와 함께 많은 수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도량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지역법회로 포교활성화 나서

장성 · 담양 · 영암 등 정기 사찰순례 및 지역행사 참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가 광주 · 장성 등 지역법회를 열고 신도조직 활성화에 나선다.

백양사는 2월 22일 장성군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장성 지역법회(지도법사 일묵)를 봉행하고, 장성지역 불교신도들의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장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법회에는 지역불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법어을 통해 “어느 때보다 지혜를 밝히는 자기 수행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지역법회지만 꼭 참석해 마음부처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대 장성지역법회장으로 선출된 서희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성읍내에 살면서 불자들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불자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다.

백양사 포교국장 혜오 스님은 지역법회 결성에 대해 “지역 여건상 절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활동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법회를 신설했다”며 “매월 정기적인 사찰순례와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법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법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며, 향후 담양 · 영암 · 나주 · 함평 등 백양사 인근 읍면지역과 대도시인 광주의 각 구별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결성해 나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지역 불교종립학교 입학식

정광 · 세지중학교 3월 2일 2017년도 신입생 맞아

광주전남지역 불교종립학교가 잇따라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을 맞이했다.

학교법인 정광중학교(이사장 원일)는 3월 2일 룸비니관에서 2017년도 입학식을 열고 총 193명(남 101, 여 92)의 신입생을 맞았다.

이사장 원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벽상학원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도 같은 날 나주, 세지지역 거주 학생 36명의 신입생을 맞았다.

한편 세지중학교는 농어촌지역 특별교육과정으로 자율학교, 예절, 다도 체험학습, 전교과 독서 및 토론수업, 동아리 활동, 테마체험 및 봉사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1인 1악기 연주와 토요관현악, 원어민활용 영어회화 등 다양한 학습을 제공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자비행, 지역사회 맑힌다

빛고을나눔나무 2017년 사업계획 확정

지역불교 최초의 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가 2017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 세심정사 주지)는 2월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7년 주요사업과 2017빛고을관등회 봉축공모사업 심사를 진행해 올해 공모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2017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사회를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해 스님과 재가 불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행자를 위한 지원사업, 빛고을관등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네팔 자전거 지원, 불교뱅크(불교나눔센터), 불교학술세미나 등의 주요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규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후원회원 확보 등이 안건으로 결의됐다.

특히 지역불교 최초로 불교공모사업을 4년간 진행하고 있는 ‘빛고을관등회 봉축공모사업’은 올해 광주지역 11개의 불교단체에 총 17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지원한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업들을 심사해 4~5월 2개월 동안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상임이사 보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공모는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단체도 봉축행사를 함께 봉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이사회 확대 · 재가자 참여 독려

상 · 하반기 나눠 공모사업 진행

총 11개 단체에 1750만원 지원

“사회에 봉축 의미 알리는 계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에 봉축의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사업으로 주목받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행자 지원사업’은 대중공양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년에 열악한 수행환경에 처한 스님들에게 전통 공양방법인 대중공양을 올리는 방식으로 생필품과 수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생의 마지막을 올곧은 출가수행자로서 위의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공모사업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원사 영유아수계법회.

하반기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네팔 룸비니지역 초등학교 자전거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올해에도 100대(1000만원 상당)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학술세미나는 최근 불교계 신도수 감소와 더불어 도심의 중소사찰과 시골의 작은 사찰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린 토론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를 담는다.

연중사업으로 진행되는 불교뱅크(불교나눔센터)는 쌀과 연탄 등 신도들이 마련한 물품을 기부 받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쌀 5000kg과 연탄 2만장을 불교단체와 복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성 스님 독립정신, 후학 가슴속에…”

장수 죽림정사 3.1운동 98주년 기념법회 봉행

일제에 항거하며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알리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온 국민이 조국의 독립을 외친 3.1만세운동.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3.1운동의 98주년 기념법회가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가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3월 1일 용성교육관에서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3.1만세운동 9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민족대표 33인에 헌화 △3.1절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제창 △환영사 △기념축사 △기념법문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유수 스님, 한영희 장수부군수, 민족대표 유가족과 정토회원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조선의 독립을 선포한 3.1만세운동 정신을 기렸다.

법륜 스님은 환영사서 “용성 진종조사는 3.1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며 “선열의 숭고한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민족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나 함께 공생공존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확인했다.

용성 스님은 한국 근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평화명상 걷기 순례단 발족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끊임없는 자아를 탐구하는 평화명상 걷기 순례단이 전주서 발족한다.

평화명상 걷기순례단(단장 김기운)은 2월 25일 전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평화걷기명상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50여 명의 불자와 시민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권기욱 호원대 교수를 초청해 걷기명상 방법과 효과, 올바른 걷기 자세, 교정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평화명상 걷기순례단은 오는 3월 25일 김제 금산사에서 정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순례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번에 발족하는 평화명상 걷기순례단은 전주시 인근의 사찰과 일반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 등을 연계한 장소에서 2시간정도씩 걷기명상 수행을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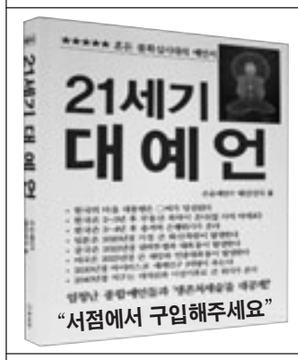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백발백중 타로카드점

한달 배우면 상담가능/1:1 맞춤
강의. 실전위주 (출장, 전화상담)
변비, 숙변, 잔변
(확실한 효과)
비법 가르쳐 드립니다/1주일
체험량 무료로 드립니다
010-2748-6321 향수해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
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퇴불 철거전문)
개금.단청.소불.중.대불
취급. 표구제작
(퇴불시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010-9177-7842

천년고찰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010-8559-9400

비구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45세 이하)
010-8030-91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대이상)
010-3524-8930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방사 드립니다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
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모십니다

위빠사나 명상 같이
지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스님 또는 재가자)
02-992-011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찾는 스님 : 무명 스님 (윤미옥)
대원정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계시던 무명스님을 찾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신 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 및 가압류, 압류, 개인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않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급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010-5445-3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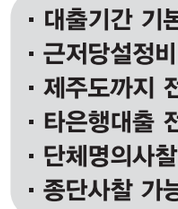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0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은행권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각 60만원
월령도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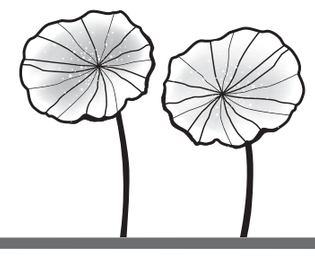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 따라갈 뿐이다.

- 자경문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원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목조 요사채. 공양간 ● 산신각. 토지 700㎡
- 뒷편 이산 사찰. 교통편리.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양도가액 : 6억원 (융자 2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60평 ◎ 면적 :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7억 ◎ 양도가 : 20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대지: 270평, 법당23평, 요사채30평
- 종각, 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아파트 분양 2,000세대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금와산방

사찰(급)안내

- 하동 한옥 토굴 양도
- 토지 6,000㎡. 한옥토굴63㎡. 차방있음
- 지리산줄기산중토굴. 청정계곡
- 녹차재배함. 조용하고 깨끗하고 남향
- 가액 : 3억3 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사장 등
- 가액 : 3억 2천

010-4628-56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 (구 : 숭인2동 220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하차 2,3번출구 대도로 바로 옆 약 15m거리
- 법당 전체 20평, 법당 10평, 요사채 10평
- 방2개, 주방1, 화장실1, 살림합니다
- 후불탱화 5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보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300만원. 가격절충

010-3722-2738

경기도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2층 149㎡ (약 45평)
- 방2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1500만, 월9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 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5억5천만원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5평(목재)
- 공양간 10평, 요사채 방 2칸
- 대지 157평
- 가액: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 총부지 임야 2,000평
- 건물 법당 16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가액 : 1억 8,500백 대출 7,500백 안고 1억 1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산시 와촌읍 소재(갓바위)
- 부지 : 300평(종교용지:경제특구지역)
- 법당 : 30평 (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30평(1층, 방 3)
- 가액: 6억원
- 특징: 대로(8차선)변에 위치하고 있음 도심인근에 있어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 부지 : 400평(문중땅)
- 법당 : 25평(단청)
- 요사채 : 2동 40평
- 산신각 : 7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산밑에 위치 하고있어 포교와 기도처로 좋습니다

좋은인연 꼭 이 루 어 집 니 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 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찰안내(토굴)

- 위치 : 송정동 터미널에서 차로 3분거리. 구미역에서 차로 5분거리
- 법당 33㎡(10), 요사채 53㎡(16)
- 방3,주방,욕실,화장실2, 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 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없음, 월3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1,8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9177-7842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7 삼안공원 앞
- 건물 3층 건물중 1층 33평, 도시가스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 집기 일체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 주차장 완비,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 큰절 소임 관계로 급히 싸게 양도함

010-3152-2732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1번지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평수 524평
- 가액 : 3억 (전세 9천)

033-434-1365

010-4248-7812

010-7128-13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 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 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추천용도 : 사찰연수원 팬션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건물중 2층,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법회가능, 주차1
- 가액: 보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83-1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역에서 5분거리
- 가액 : 몽땅 1억 8천 (조정가능)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최중심지
- 건물: 근린생활시설, 총 100평 이상
- 1층 주차장, 공양간, 종무실 기타 2층 법당 30평(원목, 난방) 3층 요사채(2-3층 교환가능) 4층 산신각 옥상정원(증축가능)
- 토지: 54평, 시설비 1억이상
- 가액 : 6억 8천(주인직접) (10년전 가격)

010-4583-0539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 수행도량, 후원 9평,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 2억5천안고 양도2억7천 (현시세땅값 7억5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0-5019-5385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적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 비결은?

공동 창업자 리치 피어슨 · 앤디 퍼디컴
3월 1일 美 월간잡지 'Inc' 인터뷰서 밝혀


세계적인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headspace) 공동 창업자 리치 피어슨(Rich Pierson · 왼쪽)과 앤디 퍼디컴(Andy Puddicome). 사진출처=Inc

"우린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start-up;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과는 조금 다른 창업 목표를 둔 사람들이 있다. 세계적인 명상 앱 헤드스페이스(headspace) 공동 창업자 리치 피어슨(Rich Pierson)과 앤디 퍼디컴(Andy Puddicome) 이야기다.

미국 월간잡지 'Inc'는 3월 1일자 보도를 통해 피어슨과 퍼디컴의 헤드스페이스 앱 개발 배경과 운영 철학을 공개했다.

피어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페드스페이스는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너무 임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명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 말했다.

헤드스페이스 창립 전 대형 에이전시 BBH서 엑스데오드란트 마케팅에 참여했던 피어슨과 스님인 퍼디컴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 명상 앱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명상 앱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두 사람 역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명상을 시작했고, 명상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이다.

퍼디컴은 친구 2명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했고, 친누나는 자전거를 타다 살해당했으며, 전 여자 친구는 심장수술 중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졌다. 큰 충격을 받아 알콜에 의존했던 퍼디컴은 모국인 잉글랜드를 떠나 불교를 공부하다 마침내 스님이 됐다.

그즈음 피어슨도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피어슨은 당시 자신의 마음에 고장이 났었다고 담담히 말한다.

'돈 벌이' 보단 사람들 행복 원해
개인사로 명상 시작한 것 큰 원인
"더 많은 사람 명상할 수 있다면"
전 세계 1,200만 이용자 확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기피했어요. 제 직업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때 피어슨은 친구의 소개로 퍼디컴을 만나게 된다. 스님이 된 퍼디컴이 지역 보건소에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명상을 가르칠 때다. 많은 사람들이 퍼디컴의 명상 수업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전부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심지어 수업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업 유인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에 퍼디컴과 피어슨은 각자의 재능을 '교환'하기로 한다. 퍼디컴은 명상을 가르치고, 피어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콘텐츠 개발이었다.

"다음해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를 위한 독점 명상 콘텐츠를 개발했어요. 전환점이었죠. 저희 명상 콘텐츠를 수록한 'The Guardian' 지는 한 달 만에 32,000파운드(한화 약 4,500만)를 벌었어요. 그 후 저희는 앱을 만들었지만, 자금도 부족했고 이미 여러 명상 앱 개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작은 미비했지만, 두 사람은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며 마침내 헤드스페이스를 세계적인 명상 앱으로 발전시켰다. 앱 개발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에 대해 40여 가지 연구를 실시, 만성 통증 및 피로 등 명상 효과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헤드스페이스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며, 1,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수백 가지 명상 세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부여,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조지 애스본 前 영국 재무관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운동선수들이 이 앱을 즐겨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앱 스토어'에선 평점 별 5개 만점 중 5개를, 기타 앱 스토어에서도 별 4개 이상을 기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2월 25일(현지시간) 혜민 스님과의 인터뷰를 게재, 2012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혜민 스님의 저서를 소개했다. 사진출처=더가디언

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英 아마존 1위

해외서 큰 인기… 가디언 · BBC등 해외언론 관심

혜민 스님의 에세이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해외서 큰 인기를 끌면서 혜민 스님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님의 책이 영문판 〈The Things You Can See Only When You Slow Down〉으로 번역돼 2월 26일(현지시간) 영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2월 25일(현지시간) 혜민 스님과의 인터뷰를 게재, 2012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혜민 스님의 저서를 소개하며 그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명상과 수행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다뤘다.

가디언은 "혜민 스님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승려로 그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2012년 출간, 1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왔다. 이 책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파워 트위터리안으로 불리는 저자의 지혜로운 대답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혜민 스님은 인터뷰서 "선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승려로서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 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힘들어 한다"며 "특히 가족들 간의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해결법을 제시했다.

스님은 특히 양육법에 대해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1~2살부터 5살 때까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조언한다. 하지만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도 자녀에게 신경을 쓰는 대신 자신의 파트너,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워킹맘들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아이들과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같이 있는 순간만큼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면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며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스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불행하게 보낸 사람들을 위한 치유법을 들려줬다. 스님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나 스스로가 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에게 줄 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만약 아이가 없다면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혜민 스님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서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온라인에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녁식사를 같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휘둘리거나 자제력을 잃는 대신 스스로의 중심을 찾기 위해 잠시 묵언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사 펭귄에서 출간된 영문판은 지난 23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됐다. 또 지난 7일 출간된 미국판도 2주 만에 판매 3만 부를 돌파했다.

영국판 편집을 맡은 편집자 다니엘 크루는 "초판 2만 부를 찍었으나 서둘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국내에서 출간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그동안 300만 부 넘게 팔렸으며, 영미권 뿐 아니라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러시아 · 멕시코 · 브라질 등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 수출이 완료됐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국 겉으론 무신론 표방… 불교 · 도교는 '예외'

프리덤하우스,
중국의 종교 탄압 실태 밝혀


프리덤 하우스는 "아시안 종교로 불리는 불교와 도교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며 "동시에 서양의 가치로 여겨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Quartz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종교탄압을 더욱 심화시킨 중국 정부가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만 예외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월 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 하게 신장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와 무슬림 세력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교와 도교는 중국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됐다. 프리덤 하우스는 "아시안 종교로 불리는 두 종교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며 "동시에 서양의 가치로 여겨지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도교와 불교의 선호는 중국 내 팽배한 서구사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같은 서구사상을 배제하고 유교로 대체해 복종을 강요한다"며 "시진핑 정부는 국제적 방식의 교육보다 '당에 충성하고 당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불교와 도교는 '차이나 드림', '중국의 대(大)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종교탄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중국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중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이안 존슨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압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찾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기독교는 고소득이면서 현대화되고 서구적 번영의 상징으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여겨지는 종교"라고 말했다.

특히 북경에서의 탄압은 가톨릭과 개신교 단체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프리덤하우스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불법적 지하교회가 배로 성장했으며,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을 결집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8〉 생각의 흐름 지켜보기

명상은 생각과 감정 찌꺼기 소멸시켜



소란한 마음 직면하기

공교롭게도 우리가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들면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명상을 실제로 그만둔 경우도 있다. 그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뒤죽박죽이 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명상을 그만두니까 살 만하네요."

명상을 그만두니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마음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았을 뿐이다. 평상시 우리는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온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미친 사람처럼 두서없이 이말 저말 해대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런데 명상의 자리에 앉으면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명상을 열심히 하면 혼란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릴 뿐 아니라 삼스카라를 소멸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삼스카라(samskara)'는 정신적 · 감정적 성향,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 빈번하게 마음속에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잡념 등을 뜻한다. 명상을 하며 내면의 장에 에너지를 보내면 그동안 묻혀 있던 삼스카라가 위로 떠올라 각성의 에너지, 쿤달라니 속으로 소멸된다.

내가 명상가로 막 첫발을 내딛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마음이 초조해졌다. 당시 나는 수백 명이 거주하는 아시람에서 묵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 기분을 숨길 방도가 없었다. 참다못해 구루에게 질문했다.

"명상을 해서 초조해지면 어찌해야 합니까?"

구루가 대답했다. "명상을 해서 초조해진 게 아니다. 그대 안에 초조한 마음이 있었고, 명상은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마음 정화하기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들이 수없이 뒤엉켜 있는 탁한 스튜다. 스튜에 들어 있는 것들이 모두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스튜의 내용물 때문에 우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맑은 물과 순수한 빛을 체험할 수 없다. 무의식의 세계에 묻힌 감정과 장애가 되는 생각, 고통스러운 정서는 명상을 통해 표면 위로 끌어올려야 정확히 인식해서 제거할 수 있다.

명상수련이 깊어지고 더 안정되면 이런 감정들을 옆으로 제쳐놓고 정화의 과정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면의 관조자는 무의식에 묻힌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비켜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빠르고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힘과 생동감을 주는 만트라가 대부분의 명상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트라의 신묘한 불은 사람의 마음에 타파스란 열을 일으켜서 내면을 청소한다. 명상을 하면서 만트라를 염송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청소 과정을 짧게라도 거친다. 자신의 집중력과 만트라의 권능이 결합되어 조금씩 그날그날의 생각과 이미지들을 지우고 마음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는다. 일단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명상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내려놓기 수련

〈요가 수트라〉에서 파탄잘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인 아비아사(abhyasa),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살펴봤다. 두 번째는 바이라기아(vairagya), 즉 초연함이다. 바이라기아는 마음이라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생각, 감정, 욕망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다.

생각 알아차릴 때 관조자 돼
주위에 쫓겨 內面 못 알아차려
명상 통해 소란한 마음 만나
관조 상태 머무르는 것이 순서

몇 년 전 뉴욕 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명상 워크숍이 열렸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녀는 워크숍이 끝나면 떠날 일본여행 일정을 짜고 있었다. 스웨터는 몇 장을 챙길지, 점퍼는 꼭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물품 목록을 체크했다. 그런데 별안간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내려놓아라!"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일단 계획하던 일을 놓고 호흡에 집중했다. 호흡에 집중하기가 무섭게 슬픈 감정이 밀려왔다. 워크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녀는 슬픈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런데도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이지?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 그래. 그 생각을 내려놓자.' 그럼에도 목소리가 또 들렸다. "내려놓아라!" 그녀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갔다. 마음이라는 대지에 지복(至福)의 물결이 일렁이는 느낌이었다. 지복의 바다를 헤엄치고 파도를 달래며 어울려 놀았다. '제발, … 멈추지 말았으면' 하고 속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려놓아라!" '지복마저도 내려놓으라고?'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니다, 지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라고 목소리가 응답했다. 그래서 지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깊이와 고요의 경지로 들어갔다. 전적으로 현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으며, 맑은 물처럼 투명해지는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이 여성의 체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 우리도 그녀가 지나간 과정을 따라가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 의심, 아름다운 체험을 집착하는 욕망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깊은 평화가 솟아오르는지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짓 인격과 분리감을 강화하는 동일시, 집착, 반감 등을 내려놓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잠시라도 자신이 타인과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성인들은 말한다. 분리되었다고 믿는 에고가 녹아들 때 자연스럽게 전체성과 자유를 체험한다. 에고가 녹아들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분리된 에고는 쉽사리 녹아들지 않는다. 그래도 수련을 꾸준히 하면 발전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려놓기 수련(바이라기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① 긴장 내려놓기

내려놓기 1단계는 신체의 긴장을 푸는 것과 관련된다. 명상을 시작할 때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굳어 있는지 온 몸을 느껴보고 경직된 부위의 긴장을 날숨과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신체의 긴장 속에는 마음의 긴장이 묻어 있어서 신체의 긴장을 내보내면 마음도 이완된다.

② 욕망 내려놓기

내려놓기 2단계는 여러 층의 욕망과 희망, 기대, 불안, 걱정 등을 내려놓는 것이다. 2단계 수련을 하면 마음에 층층이 쌓여 있던 욕망의 실타래가 드러난다. 욕망을 내려놓는 공부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마음을 흔드는지 깨닫게 된다.

③ 생각하는 자아 내려놓기

내려놓기 3단계는 보다 정묘하다. 자신을 생각하는 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생각하는 자는 생각이나 욕망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을 생각에서 떨어져 지켜보는 관조자, 지켜보는 자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생각을 쫓아내려고 덤비지 않는다. 그냥 생각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말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자신을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지켜보는 자라고 여긴다.

이 명상을 수련하는 고전적 방법으로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늘은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름이 크고 시커멓고 천둥이 친다 해도, 구름이 제아무리 많은 비를 내린다 해도,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와 똑같이 당신의 각성(참자아)은 생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의 의식은 안에서 떠오르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는 관조자가 되는 것은 관점을 이동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점을 이동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내 이름은 ○○○이다." 그런 다음 마음의 다른 쪽에서 그 생각을 알아차린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가 곧 관조자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관조의 상태에 존재한다. 관조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2017년도 제 5기 신입생 모집
일반교양 및 법사 과정

■ 모집과정 : 교양과정 (1년)
법사과정 (2년)

■ 지원자격 :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미래의 불교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3월 31일까지
◆ 접수처 - 02)989-0528 (사무국)
010-2549-4047 (교육담당)

■ 교육과정(2년과정) 및 강의시간
◆ 1년차 -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 2년차 - 법화경. 유마경. 마하지관 등
◆ 강의 : 매주 (목) 오후 6시 30분
1부 18:30 ~ 19:30 / 2부 19:40 ~ 20:40

- 김진관 법사 유마경 강의 절찬 연재 중 -
▶ 유투브(검색 : 김진관 법사 유마힐소설경)
▶ 밴드명 : 세계일화. 유마힐소설경

■ 특 전 : 상기 과정 수료 후, 법화행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자격을 수여함

한국불교법화종 유지재단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대행 스님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여) 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가족이라든가 부부 인연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중요한 인연인데 요즘에는 사실 가정에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불행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부부가 그 인연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요.

큰스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불교라는 그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풀 한 포기도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니만큼 한 가정에 이렇게 살 때에 만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망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 내가 화가 안 나?' 하고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의 원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 파괴가 되고 그렇습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 나 하나가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다면 어느 땐가 그 작업이 순조롭게 될 때 그 가정은 그 마음이…, 이 전력이 똑같은 거와 같이 광력도 똑같고 자력도 똑같고 통신력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내가 그 마음을 먹는 데에 상대방도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자꾸자꾸 거기 가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똑같이, 한 집의 전구는 제각각인데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저기 가스통이 하난데 이 가스 쓰는 거는 다 그 한 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통에서만, 나만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가정을 정말이지 부드럽게 이끌어 갈 수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선 화목이 깃듭니다.

서울에 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이 별이 셋이나 되고 아주 우쭐대고 살 사람인데도 겸손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려니까 서로 떨어지는 일이 많죠. 남편이 들어오면 하도 본 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은근히 배신해서 그런 줄 알고 말입니다, 만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얻어터지고 말입니다. 가정이 그냥 파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여보!" 하고 남편이 말입니다, 전자에 안 하던 짓을 하더란 얘깁니다.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부드럽게 "여보, 피곤해서 어떡해요?" 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해 주니까 자꾸자꾸 시간만 나면 따뜻한 보금자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 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보 어디 있어? 당신 어디 있어?' 하면 그냥 그 생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온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신이 잘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마음에 달렸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부드럽게 말해 주고요. 그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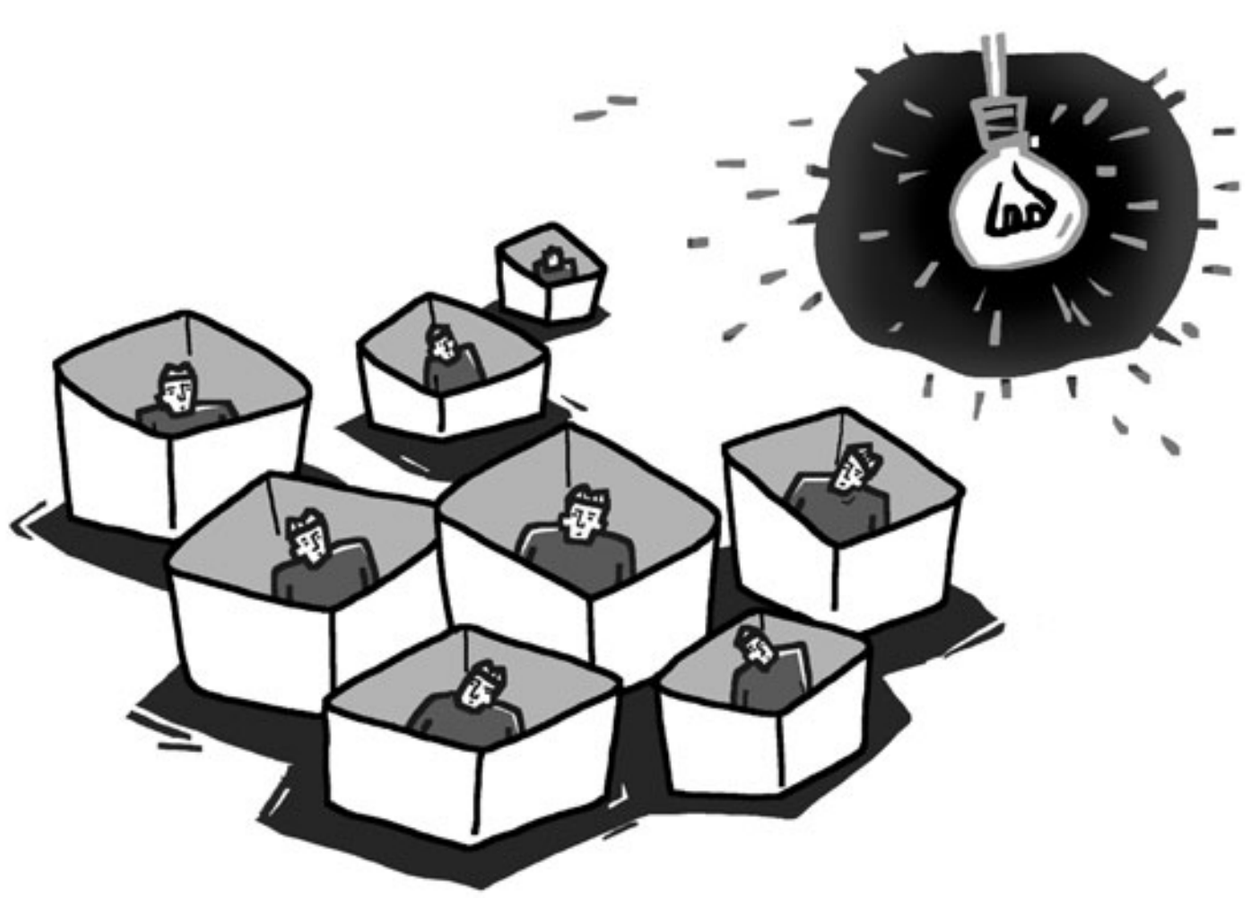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삼재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또 불교에서 나온 것이라면 삼재가 있는 동안에 불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삼재팔난이라든가 전자부터 유래돼서 내려오던 무슨 이런 것이 많이 붙습니다. 어느 달은 어떻고 어느 해는 어떻고 갑자을축 뭐, 이러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공부 하는 데는 삼재팔난이고 무슨 새 달에 어떻고 훗달에 어떻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하하, 이사 가는데 무슨 못을 잘못 박으면 안 되고, 동쪽이 언짢고 서쪽이 좋고…. 이런 거는 몽땅 놔 버리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권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우주의, 즉 말하자면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에 매달려서 그렇게 끄달려야 되겠습니까? 삼재에 끄달리고 뭐, 어디를 가면, 뭐라고 그러더라? 손이 있다나? 무슨 손이 있는지…. 그건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오히려 받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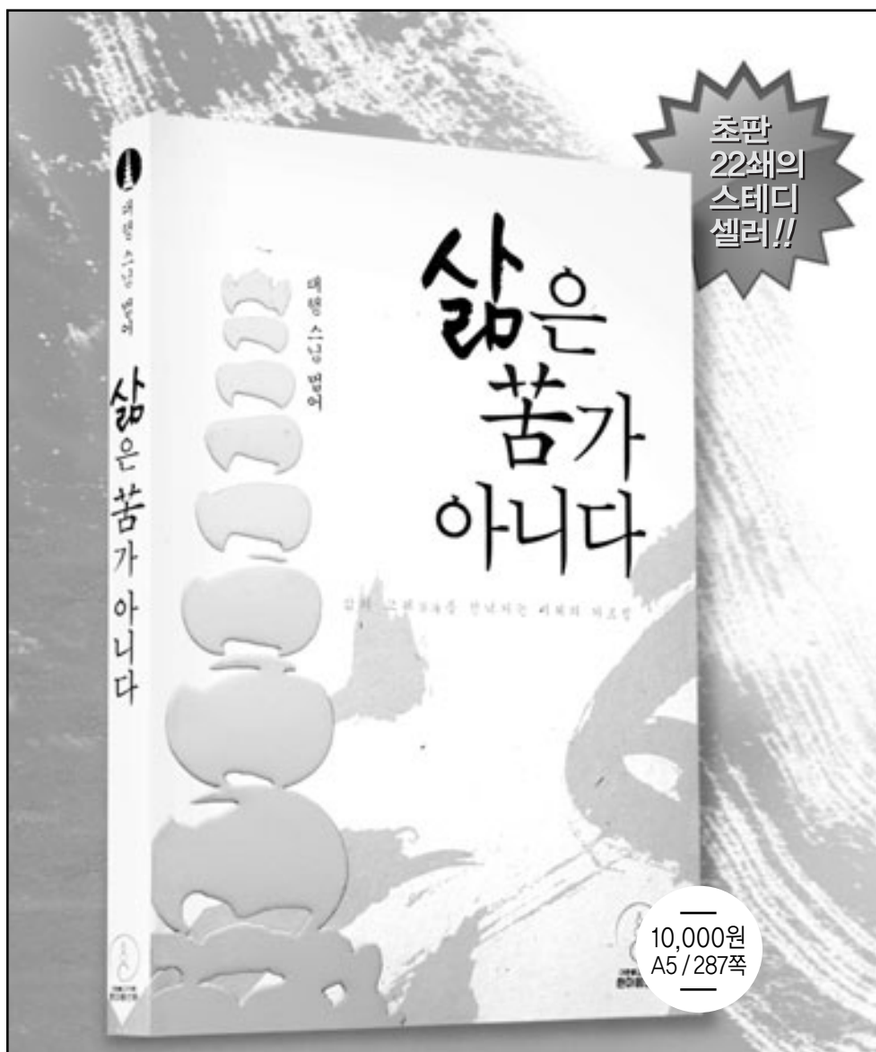
요새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업이 있으면 이렇고, 무슨 죄업이 있어서 이렇고, 영계에서 이렇게 해서 그 업으로 오간지옥이 있고 화탕지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그냥 놔 버리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금강경에도 잘 보십시오. 화엄경에도 있지만 금강경에도 있고, 금강경이 축소된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모든 것을 놔 버리세요.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했죠. 석 달 열흘을 산에 가서 공미를 올리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되던 날 꿈을 꾸니까 자기가 밥해 놓은 데에 구렁이가 서리서리 얹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꿈을 깨고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서리서리 있거든요. 할 수 없이 풀을 발라서 머리를 싹 그냥 창호지로다 바르고 석 달 열흘을 또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꿈을 꾸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꾸었거든요. 아, 쳐다보니깐 그냥 까마귀가 까욱까욱하고 날아가고 또 내려다보니까 그냥 하얗게 눈이 왔는데 꽃이 활짝 피었던 게 그냥 와르르르 져서 떨어지거든요. 또 들어와서 이렇게 안을 보니까 면경 있던 것이 와르르르 깨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하도 놀라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허수아비 목을 턱 매달아서 디릉디릉하고 있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석 달 열흘을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그렇게 꿈을 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우르르 깨지고 그냥 허수아비가 달려 있고 그러면 아마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 그릇에도 엎드러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남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래서 가다가 가다가 해몽을 하려고 누구를 찾아가는데 아, 떡 장수 노인네가 한 분 떡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떡을 하나 사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흥, 그것은 저 무학 대사나 대답해 줄 수 있지 나는 대답해 줄 수 없소."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는데 그 떡 장수 할머니는 없어져 버렸어요. "아하! 요게 무학 대사로구나." 요러고선, 무학 대사가 화해서 그 할머니로 들어가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무학 대사를 찾아서 가니까 무학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까마귀가 울고 간 것은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옥가옥' 아닙니까? 그러니 청와대 안에 집이 생긴다 이거죠. 또 색경이 깨진 것은 와르르르 깨져서 소리가 왕창 나니 모든 백성이 그 소리가 왁짝왁짝 나게 우러러 얘기해 줄 것이다. 또 꽃이 피었다 와르르 진 것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었으니 바로 나라의 국록을 먹을 것이다. 허수아비가 매달린 것은 바로 모든 백성이 쳐다볼 것이다. 우러러 쳐다본다는 뜻이다. 이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그 꿈 해석을 해 주면서 아주 뒤바꾼 거죠, 그냥. 그러니 무학 대사의 능력도 알아볼 만하죠? 그러니 우리의

☞ A18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어떠한 꿈을 꿨든지 좋게만 생각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그 뒤바꾸는 그 마음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깨치질 못했으니까 뭘 어떻고 저떻고, 이 이유는 거기에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유 때문에 그만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무학 대사가 길을 인도해서 이성계가 인군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죽는 꿈을 꿨든지 살 꿈을 꿨든지 피를 흘리는 꿈을 꿨든지, 어떠한 꿈을 꿨든지 좋게만 생각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타당하게 자기 앞에 있던 것이 아주 좋게, 이것이 해결 나려고 이런 꿈이 꾸어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든지, 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꿈을 꿨다, 또 승진을 하려고 이런 꿈을 꿨다, 하여튼 어떤 거든지 좋게만 생각하셔야지 만약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이론이 있으면 나쁘다고 생각했으니까 나쁜 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팔자 운명은 어디 누가 갖다 줍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갖다 주는 것이죠.

전 삼재를 모르거든요. 허허허. 전 모든 걸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편리하죠. 여러분은 모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아마 복잡하실 겁니다. 하하하…. 나같이 바보처럼, 길을 걸어도 바보 같아서 저 꽃을 보고도 싱긋이 웃고 그저 서로 주고받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문자4(여) 스님,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인공에 놓는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게 마음을 놓지만, 혹시 나쁜 일이 생길 때는 그 나쁜 일이 생긴 순간에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생각이 붙어 가지고 이왕이면 저한테 좋은 마음으로 되는 원을 하고 함께 놓습니다. 괜찮습니까?

큰스님 음, 그렇게 길게 갈 것도 없죠.

질문자4(여) 글쎄 말입니다.

큰스님 나쁜 것이 돌아올 때는 '허허,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도 여기고 나쁜 것이 돌아오는 것도 여기니까, 그것이 또 좋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놨을 때 그것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죠.

질문자4(여)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서 원을 놓고….

큰스님 믿어라 이거죠.

질문자4(여) 믿고 놓으면 되는 거죠?

큰스님 믿지 못하면 그렇게 바꿔서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바꿔서 맡길 수가 없거든. 믿으니까 맡겨 놓을 수 있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질문자5(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를 찾아서』의 스님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의 사람들에게는 실험적으로 부려질 수도 있다' 고 하신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저의 생각에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신경 기도 주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대목에 속한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호령이라든가 어떤 그 지도령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영혼들은 어느 차원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차원도 한 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큰스님 이거 봐! 인제 그거 알아듣겠어.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가 3차원에서 산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4차원이다 하는 건 바로 일심이 굳어졌을 때의 얘기야. 구체적으로 내가 발견했을 때, 3차원이 한데 합쳐져서 일심으로 굳어졌을 때, 그럼 4차원이 바로 무심이 돼 버려. 4차원이 일심이 돼 버리고 무심이 돼 버려. 그 뜻을 모르겠지? 그렇다면 '나를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가 아니야, 그때는. 그대로 행하면서 악을 범하지 않아. 악이 있더라도 자비로서 그 악의, 즉 영혼을 자기가 여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아. 그리고 꺼내도 줄지 않고. 영식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깐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둘이 아닌 도리를 자꾸 배우는 때야, 무의식중에 자꾸. 그럴 때 무슨 '나를 악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게 들어가? 거긴 그런 언어가 붙지도 않아. 벌써 무심으로 수만 개의 영식이라도 나한테 넣을 수 있고, 내가 수만 개로 돼 가지고 주장자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로 돼 가지고 분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수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빼도 줄지 않아. 이런 땐데 어떻게 '나를 악에 빠트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 소리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은, 부처님이 아니라 깨달은 분이지. 즉 말하자면 깨달은 분이 가르치시는 그 뜻은 그렇게 맵자해. 주렁주렁 달리지 않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가다가도 "삿갓 쓰고 주장자 들고 바리때 하나 들고 한 발로 이 땅을 딛고 목마를 때 물 마시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야. 아주 맵자해.

그러니까 달마 대사는 아이, 약을 먹여서 죽였는데도 그 산소 안에 짚신 한 짝을 놓고 짚신 한 짝은 주장자에다 턱 짊어지고선 터억 보였단 말이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는 무의 세계에 있고 하나는 유의 세계에 있고, 둘이 아닌 짚세기가 허, 두 짝인데, 발 하나는 무의 세계의 발이고 하나는 유의 세계의 발이니 그저 항상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다 이 소리지.

그러니 4차원에 이를 때에는 바로 무심, 그 도리를 그대로 증득하고 그대로 알 수 있을 때고, 5차원이 된다 이럴 때는 이 모두를 둘이 아니게 할 때, 그때에 바로 육식을 마음대로, 육식이다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을 말해. 그거를 다 수용하고 내가 나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은 7차원에 이르러서 육식은 다 없어. 7차원에 그냥 한데 포함이 된 거야. '하나' 하면 하난데 '둘' 해도 하나가 돼 버려요. 어때요? 여기서 '만 불' 하는데 '십만 불' 하니까 그냥 만 불이 없어지고요, 십만 불 하나로 돼 버렸죠. 예, 십만 불 하나로 돼 버렸는데 뭐 만 불이 거기 붙느냐 이거죠. 십만 불 불렀는데 무슨 만 불이 거기 붙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거야. 만 불 부를 때도 하나요, 십만 불 부를 때도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깐 그 씀씀이에, 모두 천차만별로 쓸 씀씀이에 의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스스로서 들이고 내는 만법의 진리는, 그거는 7차원의 보배를 얻을 때 이 모두가 천국이고 모두가 보배로다. 보배 아닌 게 없으니 어떻게 천당 지옥을 따로따로 찾으랴. 내 마음이 구족하면 전부 구족하고 전부 천당이고, 내 마음이 구족하지 못하면 전부 남을 원망만 하고 이 세상 살 수 없고, 이 세상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잘못하고 뭐 정치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일어나고 모두 그래서 저희 집도 태워 버리고 이러는 수가 많죠. 우리 집도 반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선, 집 하나 사 가지고는 반쪽씩 나누어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하하.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마저 태워 버리려고 그러는 수가 많거든요.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조선 오백 년뿐만 아니라 수없이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탄압을 받고 얼마나…. 아이고,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정치를 하면서 백성을 이끌어 가면서 그렇게 눈을 좀 뜨게 해 주고 귀를 좀 뜨게 해 주고 좀 더 믿어 주고 좀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쳤더라면, 이 역사가 이렇게 오지도 않았거니와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그렇게 생체로 연구를 하게끔 만들어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좀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는 않고 꼭 남의 관습에 의해서 살아오는 그런 것만 습을 가지고선 만날 그냥, 주장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풍지박산이 돼 가지곤 여기 몇 명 모인 분들도 다정하게 좀 한마음이 돼서 뭉치지 않고…. 배알도 없습니까? 어째 배알이 없습니까? 일본은 그래도 배알이 있어서, 그래도 뭐 건덕지라도 딱 해 놓고는, '흥! 너희가 아무리 주를 많이 가졌어도 내가 은행이든지 주든지 차든지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집어삼켜 보겠다.' 그래도 요런 야망이라도 가졌는데 우린 야망도 없어. 하루하루 그냥, 그냥그냥 헐렝이야, 헐렝이.

> 삿갓 쓰고 주장자 들고 바리때 하나 들고
> 한 발로 이 땅을 딛고 목마를 때 물 마시니
>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저거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거 서로 그냥 찢고 뺏고,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라면 부모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 주는 겁니다. 믿어 주고 믿어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믿어 주는데, 안 한다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국민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믿어 주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회개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L.A.의 많은 인구들이 한마음으로 당친다면, 큰일을 치를 때는 너무 말이 많을 테니까 셋으로 나누어서 한마음으로 당쳐서, 세 단계가 한마음으로 그냥 또 이렇게 당쳐서 큰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라에도, 정부에도 그 빛을 또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자기 할 탓이지, 어디 가서 머슴을 살아도 자기 할 탓이지 왜 주인을 나무랍니까? 꾀나 살살 피우고 그런다면 그거 믿어집니까? 우리 중노릇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꾀나 살살 피우고 자기를 아끼고 그런다면 신임이 안 갑니다. '저 사람은 저러려니….' 이렇게 그냥 신임이 안 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그마한 일이든 뭐든 진정으로 버리고 할 때, 그게 끈질기게 나가면 끝에 가서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국에 와서 한 달이 넘게 돌아치다 보면 어떤 땐 참 넋을 잃고 저 먼 산을 보고, 그것도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나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뭘 잘못하고 이런 탓이 없이 나 스스로 그냥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더, 여기 몇 분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내신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한마음으로 뭉치되 인구가 많으니까 셋으로 나누어서 이럭해서 당쳐진다면…, 우리가 큰 몫을 한번 하고야 가지,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갑니까, 이 세상에 나왔다가.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아무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길이지만 그래도 가고 오는 길에 그대로 갈 수는 없죠. 뭔가 우리는 영원한 길에 한 번이라도 '이게 영원한 길이로구나. 이게 영원히 할 수 있는 길이로구나. 영원히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일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게 자비고 사랑이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한데 떨어트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분이 있다면 다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뭐, 꼬리표 붙여 놨습니까? 중이 여기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내라는 꼬리표 붙여 놓지 않았습니다. L.A.의 어떠한 절이라도 핵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저 많이 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고 이럴 수 있는 이 한마음이 된다면 나야 뭐, 여기서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됩니다. 난 이런 데 착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님네들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단 하나, 여기 몇 분이라도 핵심적인 이 도리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한인 단체가 구족하게 빛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말입니다, 여기 L.A.에서 한 가지 꼭 하실 게 있습니다, 한인으로서. 꼭이요! 그렇다면 미움도 절망도 또는 무시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나서서 젊은이들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1년 3월 10일 L.A.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불자 세상보기

금요 조기퇴근제, '朝三暮四' 정책

〈조삼모사〉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내수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금요일 4시 조기 퇴근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의문

소비할 시간 없는 게 아니라
여가에 쓸 돈이 없는 게 문제

대기업이 묶어놓기만 한 자본
이제는 재투자를 통해 풀어야
자본이 선순환돼 경제 살아나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말했다.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내었다. "그럼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지."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위의 일화는 모두 다 아는, 〈장자〉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이야기이다. 새삼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꼭 이 모습인 것 같아서이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시킴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오후 4시에 조기퇴근만 시키면 과연 소비가 촉진될 것인가? 과연 퇴근이 늦어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것인가? 돈 쓸 시간이 없어 돈을 안 쓰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이야기라고 말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쓸 돈이 없어 돈을 못 쓰는 데, 일찍 퇴근시키면 그 남는 시간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사람도 너무 많다. 그리고 과연 금요일 일찍 퇴근을 시킨다면, 그 조기 퇴근을 위해 평일 근무시간을 늘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근로 기본 시간을 확실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조삼모사'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일에 일을 더 많이 하고 금요일에 적게 한다는 것이 되는 방식의 '조삼모사'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정책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되물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물었던 것들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비판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우선 답을 해야 한다. 기본 근로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원숭이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이유가 돈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조사나 통계가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쓸 돈도 없는 국민들이 부추겨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그 쌓여져 있는 돈을 풀게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재투자를 하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돈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맞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이 풀려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상황도 해결되고 소비도 촉진된다.

임시변통의 졸속한 정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은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책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충분한 보완을 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면, 부실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오는 쓸데없는 혼란을 줄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社說

현대차GBC 논란, 공정함이 해법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건립과 관련해 불교계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조계종이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청회까지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이하 봉은사 대책위)는 2월 28일 현대차 측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조계종 환경위원회 소속 전문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3월 2일 강남구청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위원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대앙과 세부항목 등이 부실해 전면 수정해야 하고, 전통문화환경 · 일조권 · 도심 생태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층고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 자연과학대학장은 "105층 건물은 도시적 맥락에는 부응하지 않는 계획으로 층고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봉은사 대책위는 "현대차 GBC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 사업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당장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개발이 얼마나 산하대지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도시에 높이 올라가는 고층 주상복합으로 지반이 틀어진 일산 백석동의 경우도 잘못된 개발이 낳은 피해다.

개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피해 입는 주민이나 기관이 없는지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105층이라는 마천루를 건설하는 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불교계의 주장을 '생떼'가 아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한 과정임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인식하길 바란다.

불교대학, 이제 변화해야 산다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불교대학이 위기다. 조계종 포교현황을 보면 60명을 넘었던 불교대학 평균 입학자가 40여명 언저리에 불과하다.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이 회주로 있는 대표적인 포교교육사찰 불광사의 불교대학도 2005년 기준 250명에 달했던 수강생들이 100여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니 그 실정을 알만하다.

이런 와중에 포교원이 디지털 강좌 등을 활용한 단기 과정인 신행불교대학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기존 불교대학들이 반발했다. 쉬운 교육과정에 수강생이 분산돼 안 그래도 어려운 학사운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자. 현재 불교대학의 문제는 수강생들을 끌어 올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강좌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명강사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다. 여기에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대학 강좌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현재 불교대학 대부분이 다른 강좌와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온라인 강좌 도입은 꺼린다고 한다. 명강사를 초빙하거나 양성하기 보다는 신도들에게 입학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제 불교대학은 수강생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행불교대학을 계기로 기존 불교대학도 변화해야 한다. 온라인 융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강좌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명강사를 배출하기 위한 강사 양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포교사 외 신규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불교대학이 살아남는 길이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보시, 머무름 없는 善行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며칠 전 도쿄서 열린 학회에 다녀왔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8년간의 유학 생활 중 후반기 3년 동안 머문 일련종(日蓮宗)의 상원사(常円寺, 죠엔지)라는 사찰이었다. 상원사는 서울 강남의 봉은사처럼 도쿄 최대 번화가인 신주쿠 빌딩 숲에 자리하고 있다.

당시 나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외국에서 이방인에게 돈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끝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에 '일당'이 괜찮은 통역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수업이 있어도 안면몰수하고 일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나의 지도교수님은 2년 뒤에 정년퇴임을 하셔야 했고, 유학생인 나로서는 그 전에 박사논문을 제출해야 했다. 지금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해서는 박사논문을 예정된 기간 내에 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쿄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어떤 사찰에서 불교를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모든 광열비가 무료라나. 일반 공개 모집을 하지는 않지만 지도교수님께서 보증을 해주면 면접을 본 후 받아준다고 했다. 생활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세 부담만 덜어도 아르바이트는 확 줄일 수 있을 터였다. 내 사정을 잘 아신 교수님은 그 사찰을 소개해 주셨고, 면접까지 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말 좋았다. 일본 사람들도 방세가 비싸서 엄두도 못내는 도쿄 최대 번화가속의 조용한 사찰인데다 절 본채와는 따로 떨어진 독립된 현대식 건물. 듣던 대로 광열비가 무료다 보니 생활비 아끼느라 춥고 덥게 살았던 나로서는 그야말로 극락이 따로 없었다. 감사함이 샘물처럼 매일 같이 샘솟았고, 박사논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료였지만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었다.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그곳에 사는 스님들과 마당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이 역시도 자유라고 했다. 사실 절 마당에 쓰레기가 날마다 쌓일 일도 없었고, 그냥 매일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의미였으리라. 재미있는 것은 8시가 되면 청소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럼 무조건 청소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더 쓸어 담을게 있어도, 심지어 내가 쓸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스님들께서 빗자루를 '빼앗고는' 그만 들어가라고 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시거나 낙엽이 많아 청소하고 계실 때 머리도 식힐 겸 도와드리려고 하면 스님들은 단호히 못하게 했다. '절대!'

또 하나, 유학생들이 사는 층에 스님들은 '절대' 오지 않으셨다. 혹시나 건물 점검 등의 이유로 방도 아닌 복도에라도 들어와야 할 때는 사찰 건물임에도 학생들의 허락을 사전에 '간곡히' 구하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살다보니 알게 됐다. 이분들에게 우리는 '공짜로' 사는 학생이 아니었다. 이미 스님들의 마음에는 '공짜로 준 사찰의 방이니까'라는 마음과 그러한 상(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침에도 '약속된' 시간 이외에는 절대 청소를 못하게 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은 '공짜 방'이 아닌 우리 공간이었기에 존중해주신 것이다. 오히려 '공짜로 산다'는 계산적인 상은 내게 있었다.

상원사는 그렇게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큰 도움을, 또한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신 곳이기에 이번 도쿄 방문길에 찾아뵈었다.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및 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20년경력 성지순례지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OOOO CO LTD
문의 전화 02-365-7747
부탄 / 티벳
· 티벳6일
· 티벳 하늘열차 8일
· 동티벳 9일
· 부탄-네팔 8일
바랑메고 떠나는 수행길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 2층
www.mahayeon.com
· 인도 8대 성지 11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인도/네팔/스리랑카
·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영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 6일 웨리크루즈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중국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미얀마
· 라오스 6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 베트남-캄보디아 6일
· 대만 5일/대만-홍콩 5일
· 태국 5일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태국/대만/홍콩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라디오
BTN 불교라디오 개국 2주년
2nd Anniversary
24시간 언제나 전세계 어디서나 울림!
울림
BTN 불교라디오
BTN 불교라디오 울림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는 방법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울림 검색 후 설치
BTN 불교라디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 02-3270-3464~7 | www.btn.co.kr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최고의 품질에
불자의 정성을
더 합니다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현대불교
Mandala

베를린 사로잡은 두 승려 이야기
'앙뚜' 의 문창용 감독 B5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제 1138 호 B1



40년간 수행과 자비실천을 해 온 연꽃모임 도반들이 2월 14일 함께 모여 환하게 웃고 있다. 매달 열리는 법회에서는 도반들의 웃음꽃이 핀다. 수줍게 연꽃을 들고 있지만 더 이상의 꽃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기도와 자비로, 세상 밝힌 40년

道伴의 향기 부산 연꽃모임

한 보살의 기도로 시작된 인연

1977년 대원성 보살 집서
점심 공양하며 기도 입재
'기도 한번 해볼까' 는 마음,
얼음물 꽝꽝 깨는 신심 발전

꾸준한 신행으로 삶 변화 이끌어

금강경 사경 후 1만권 법보시
〈천수경·금강경〉 6만권 배포
일타·고암 스님 지도법사로
스님 일화 모아 '일기' 로 발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10일 후에는 시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연꽃이 되어 반조하는 도반들의 삶은 4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반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되어 지금도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다.

2월 14일 부산 초량동 연화선원 지장재일 법회로 모인 '부산 연꽃모임(회장 이대원성)' 회원들은 평균 연령이 7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주는 세월의 덧없음이 그들에겐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세월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유를 모임에서 만난 도반에게서 찾았다. 도반이 주는 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했다. 혼자 겪는 아픔은 없었다. 삶의 무거움에 빠져들 틈도 없이 도반들을 만나면 따뜻한 웃음으로 자신이 채워졌다. 서로에게 연꽃이 되어 자신을 맑게 하는 그들을 사람들은 '연꽃모임' 이라고 부른다.

1977년 자비기도로 인연 시작

연꽃모임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7년 1월 22일이다. 현재 회장인 이대원성 보살이 100일 자비기도를 마친 날이었다. 이대원성 보살은 자신의 집에 젊은 어머니들 30여 명을 초대했다. 점심 비빔밥 공양을 초청받은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대원성 보살이 100일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왔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인가?' 의구심이 들 때였다. 그들은 기도를 마친 이대원성 보살의 맑은 미소를 보았다고 했다.

"처음엔 불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대원성 보살이 한 말에 도반들과 함께 '기도를 해볼까' 라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 회원들이 불자가 아니었어요. 편하게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 점점 마음이 깊어졌어요. 나중에는 법당에 가고 싶어 추운 겨울 꽝꽝 언 물을 깨 씻기도 했죠.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여기 도반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자(본심화 · 73)

연꽃모임이 자신의 일부와도 같다는 문영애(정인심 · 71) 씨는 눈물을 보이며 가장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반들이 손을 내밀어 줬다고 했다.

"유치원 학부모 덕분에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 무종교인이었어요. 신랑을 간암으로 일찍 여의고 혼자 어려운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을 먼저 보낸 후에는 마음이 상해서 모임에도 가기 싫더군요. 그때 도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죠. 딸 아이 세 명을 혼자 키우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크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난 딸아이 결혼식도 혼자서는 감당을 못했을 텐데 도반들이 가족처럼 정말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준 그 세월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깊은 정은 도반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신행 통한 삶의 변화 이끌어

지금도 그들은 서로의 법명 만을 부른다. 법명 외엔 원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불교가 맺어준 인연 속에 그들은 더욱 더 든든하다. 그래서 그들은 연꽃모임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신행을 꼽았다. 그들은 매달 법회와 기도를 위해 모였고 각자 집에서 사경과 개인 기도를 잊지 않았다.

첫 모임의 발단이 가정불단을 만들고 매일 기도했던 대원성 보살의 원력이었기에 대원성 보살의 집을 중심으로 회원들은 모였다.

신행이야기와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 부처님 경전, 공부법, 기도법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의 해답까지 얻는 장소로 대원성 보살의 집은 회향됐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회원들은 실천했다. 사경을 쉬지 않고 했으며, 기도도 잊지 않았다. 신행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사경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글 〈금강경〉을 사경한 권수가 62권에 이르러요. 부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돼 수많은 시간 저를 보호하고 이끌어 줬다고 믿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없어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도현(연화심 · 73)

수행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었다는 정도현 씨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도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믿음으로 병마를 이겨낸다는 것은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참된 도리를 실천할 때 얻는 평안이라고 설명했다.

"백혈병이었어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망감에 어찌 할 바를 몰랐을 때 부처님께 의지를 했어요. 단순히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힘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주변을 힘들지 않게 제가 돌아볼 수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실천을 했을 때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완쾌되어 부처님께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의 공부를 위해 시작된 금강경 사경은 더욱 발전했다. 이들은 〈금강경〉을 사경한 '금강경한글사경집' 1만권을 부산불교와 전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시했으며 〈천수경 · 금강경〉도 6만권을 배포했다.

또 연꽃모임은 스님들과의 인연도 쌓아갔다. 일타 스님과 고암 스님이 이들 모임의 지도법사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운허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혜인 스님의 가르침도 받았다. 큰스님들과의 일화를 책으로 엮어 이 대원성 보살은 〈바라밀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바라밀 일기〉에는 큰 스님들의 다정한 필체로 적혀 있는 편지글과 일화들이 담겨있었다.

대원성 보살은 "연꽃모임을 창립한 후 법정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송광사에 버스를 대절해 갔다. 그 후 스님은 우리의 안부를 '버스 두 대분은 잘 있어?' 라고 물으셨다"며 "함께 불일암 오솔길에 앉아 야단법석도 열었다. 스님을 자유롭게 친견하는 행복은 정말 컸다" 고 회고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절 수행

B4
출판
윤창화 〈당송시대 선종사원…〉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 의 일본사찰 엿보기

연꽃 닮은 삶으로 도반들과 회향의 길 걷다



이대원성 보살은 40년 전 이웃을 위한 축원 기도를 시작으로 연꽃 모임을 창립했다.



법회에서 기도를 올리는 연꽃 모임 회원들. 가정 법회 뿐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으로 신행 생활을 이어가며 도반과 함께 한 삶이 곧 성장의 시작이었음을 강조했다.



연꽃 모임은 신행 활동 뿐 아니라 나눔 활동에도 앞장섰다. 사진은 보현봉사회 1주년 장면이다.



연꽃 모임의 지도법사였던 고암 스님과 함께.



연꽃 모임 회원들이 1978년 제등행진에 참여한 모습.

연꽃모임은… 1977년 1월 22일 창립됐다. 이후 사경, 기도 사찰 순례를 이어가며 다채로운 신행활동을 펼쳐왔고 보현봉사회와 장학회 운영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1월 창립 40주년을 맞은 연꽃모임은 방송 포교를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장학금 후원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부산 연꽃모임

B1면에서 계속

지난 2월 19일에도 연꽃모임 회원들은 제주 약천사를 다녀왔다. 2016년 6월 입적한 회주 혜인 스님을 기리는 약천사 리틀붇다어린이합창단 제7회 정기공연 '혼저 돌아홉서예-혜인 큰스님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대원성 보살은 추억을 회고하며 혜인 스님 친필을 꺼냈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적힌 글씨에는 혜인 스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이 드러났다.

대원성 보살은 "스님과의 인연은 저희 모든 연꽃모임 회원들이 신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모습 그 자체만으로 살아 있는 법문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승가에 대한 존경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나눔으로 온 세상 맑게

연꽃모임 회원들은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고 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함께 하니 가능한 일들이 넘쳤다. 연꽃모임은 자비실천의 원력을 세웠고 의지를 다졌다.

연꽃모임이 중심이 되자 회원 아닌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다. 1994년 연꽃모임은 '보현봉사회'를 조직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하자는 말에 회원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보현봉사회는 20년 동안 천마재활원 및 교도소 위문, 종립학교 무료급식 지원, 노숙자 쉼터 보현의집 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봉사를 통한 삶의 변화는 회원들을 더욱 성숙하게 이끌었다.

김원옥(무삼화 · 72) 씨는 연꽃모임 회원 중 40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이였다. 그녀도 연꽃모임 전에는 불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처음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는 두렵기까지 했다고 했다.

"당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교도소라는 장소에 발을 들여 놓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서 보고 난 뒤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활원에 들어갈 때는 이런 곳을 왜 오자고 했느냐며 불만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고, 또 그들의 옷을 세탁하며 참된 감사와 만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법회를 통한 가르침과 실천을 통한 깨달음은 저를 성장시켰고 그래서 5남매를 키우는 쉽지 않은 가정사도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진(환희행 · 73) 씨는 "부처님 말씀과 도반들로 인해 하심을 알게 됐다"며 "지금은 불교를 수화로 전하는 일도 하고 병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꽃모임의 활동은 이뿐 만이 아니다. 대원성 보살은 '사람이 보배다'는 뜻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인재불사에 앞장섰다. 군법당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1990년 '연꽃 장학회'를 조직해 승가 장학금과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을 후원했다.

"당시 아들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불자 손들어 봐라해서 손을 들었더니 덥석 법사를 시키더라고 합니다. 그곳이 당시 파주였는데 아들의 말만 듣고 파주로 주소만 가진 채 찾아갔어요. 눈에 보인 현장은 너무나 열악하고 청년들은 와서 부처님 말씀 하나 못듣고 졸고 있더군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간 거해 스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대원성 보살**

인재불사를 강조한 대원성 보살과 함께 군법당 소식을 들은 회원들은 모두 망설임 없이 함께 뛰어 들었다. 군법당 뿐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과 스님들을 위한 장학 사업도 20년 동안 진행됐다.

"당시 스님 가운데 유독 영어가 어렵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원비를 드려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렇게 승가에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움 살림 때문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죠.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집 자녀 중 한 명이 서울대 의대를 갔고 한 명은 서울대 치의대를 가서 지금은 대학교수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결과는 믿고 잘 따라준 회원님들의 은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원력을 물었다. 그러자 대원행 보살은 423명의 이름이 적힌 책자를 보여줬다. 매일 새벽 예불마다 축원을 올리는 이들이라고 했다. 인연을 묻자 '내생(來生)장학회'에 후원해 준 분들이라고 했다. 이는 스님들의 공부를 위한 장학후원회였다.

"인재가 보배입니다. 사실 연꽃 모임도 그렇게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단지 옆에 사는 분들을 보며 기도하고 축원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시작점이 된 것이니까요. 자비의 마음으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것 그것이 축원입니다. 그것이 행동이 되면 장학금도 되고 봉사도 되죠. 공덕은 바로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축원 기도가 가장 행복하다는 대원성 보살이다. 그리고 축원기도도 법정 스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처럼 회향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고 달이 물 밑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조차 없네' 이 말씀은 법정 스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연꽃이 질 때 이렇게 지길 바랍니다. 흔적 없는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회향되길 바랍니다."

연꽃모임 회원들은 대부분 70세를 넘었다. 연꽃모임 창립 후 40년의 시간은 인생의 절반보다 더 길다. 부처님은 도반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다. 연꽃모임 회원들의 삶을 돌이켜 보며 연꽃과 같은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 준 도반들이 인생의 전부였다. **하성미 기자**

신행 불심, 자비나눔으로 번져

20년간 재활원 봉사 및 교도소 위문
스님 및 저소득가정 아이 장학 지원
사회 일원 성장한 아이들보며 보람

> "공덕은
>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 비로소 시작돼"



가피의 원동력, 자기절제와 굳건한 신념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⑤ 3000배 천일기도 사연



그림 · 박구원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쏟아 부을 때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일에 성과를 이룰 때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자신감은 짜릿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데, 그 행복한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업장을 녹인다. 3000배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방편이다.

79일 동안 1080배, 마지막 21일을 3000배로 백일기도를 회향하면서 신심을 키운 불필 스님의 친구(지난 회서 소개)는 다시 3000배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절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3000배는 마치 난공불락의 수천 미터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미 백일 동안 1080배씩을 한 터라 조금은 수월했을 것이다. 1080배를 하고 나면 108배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절은 한두 번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중요하다. 인생과 닮아 있다. 큰 고비를 넘긴 사람이 웬만한 어려움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도 100일 동안 3000배를 한다는 것은 변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목표 없이는 불가능하다. 변화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지 않은 본래의 나로 돌아갈 때 병도 치유되는 것이리라. 스님의 친구는 일념으로 기도하던 중 온 몸에서 흰 벌레들이 거미줄처럼 죽죽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경험을 하며, 마지막 날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를 마쳤다. 10년 이상 불치병을 앓았던 친구는 3000배 백일기도를 하고 씻은 듯이 병을 완치하고 결혼한 다음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고 한다.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시켰던 성철 스님은 '절을 해서 업이 녹는 것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면 생업도 그만두고 절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불필 스님의 친구분이 이를 증명한 것 아닐까.

요즘도 금강굴에 가면 법당에 늘 좌복이 한두 개 펴 있다. 금강굴로 출가를 하러 오면 백일 동안 3000배를 하게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방석인 것이다. 하루 1000배를 하면 1000배의 신심 위에서, 1만 배를 하면 1만 배의 신심 위에서 출가생활이 이뤄진다는 것이 불필 스님의 신념이다. 3000배 백일기도를 회향한 그 힘으로 출가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것이다. 사미계를 받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퇴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3일 동안 3000배 기도를 한다. 그렇게 출가한 스님의 상좌들은 예순이 넘었어도 하루 일과로 600배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천배, 3000배를 하는 분들도 여럿이다. 불필 스님은 절 수행의 효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치고 살아야 자존감이 들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야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데 108배가 가장 적절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 하신 법문 가운데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법문을 가장 좋아해요. 자기를 바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부처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을 함으로 해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던 다음을 생각하면 망설임이 생겨 밀고 나갈 수 없어요. 다음을 생각지 말고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해보면 알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3000배를 통해서 인간이 지닌 위대한 힘을 발견한 한 분을 소개할까 한다. 불필 스님께 이 분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어떤 분일까 궁금하던 차에, 몇 해 전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막 예순 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단아한 인상과 단단하고 날씬한 몸매로 볼 때는 사십대 중반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여배우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안정된 아름다움을 내뿜었던 이 분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3000배를 했다고 한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말이다. 절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 봤어도 이렇게 지독하게 절을 한 분은 처음이었다.

삼십대 초반에 성철 스님에게 법명을 받고 싶어서 백련암으로 가던 길에 금강굴에 들렀다가 불필 스님을 만난 것이 절수행의 시초가 되었다. 하루 1080배 기도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근기가 높은지 성철 스님을 뵙고 '도향선'이라는 법명을 받고는 하루에 3000배씩 천일 동안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큰 도인을 뵙고 신심이 북받쳐 올라왔을 것이다. 나도 이 분을 처음 뵌 그 날, 집으로 돌아와 백일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그 날, 집에서 가장 큰 방에 있던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방석 하나만을 둔 채 기도실로 만들고는 절을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규칙 하나를 세웠다.

"선 그 자리에서 3000배를 할 것!"

그러니까 한 번 절을 시작하면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화장실을 가서도 안 되고, 물을 마시러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며, 누가 벨을 눌러도 문을 열러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선 자리에서 일고여덟 시간 동안 한 번에 3000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통은

금강굴서 불필 스님과 인연맺어
절수행 서원, 천일기도 입재
20년간 3000배 쉬지않고 정진

한 시간 단위로 50분 동안 절을 하고 10분 쉬면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며, 시간이 흐르면서 체력이 떨어질 때는 약간의 간식을 먹기도 한다. 3000배 등 긴 시간 절을 할 때,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사탕 한두 알, 여름에 먹는 수박 한두 조각은 그야말로 감로수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절하기 전엔 국물이 있는 음식을 피하고 날 김에 밥을 싸서 먹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여름에 그렇게 좋아하는 상추쌈도 혹여 졸음이 올까봐 입에 대지도 않았다. 간혹 아이들이 일찍 하교를 해서 벨을 눌러도 열어주지를 못해 밖에서 울고 있으면 이웃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봐주었다고 한다.

300배를 남겨놓고 불가항력적으로 화장실에 가야했을 때는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가차 없이 처음부터 다시 절을 했다고 한다. 그런 날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한 셈이다. 몸살이 나서 도저히 절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 절을 했고, 외국에 갈 일이 생기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호텔로 달려가 3000배를 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는 병원 옆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3000배를 하고 나왔다고 하니, 산속의 여느 수행자보다 더 지독한 생활을 한 것이다.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물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행을 떠났으면 여행에 집중하는 것도 3000배 못지않게 중요한 수행 아닐까요?"

"부처님 그리고 큰스님과의 약속이고, 또 무엇보다 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천 일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지켜보고 싶었어요. 하루에 3000배를 하려면 다른 일은 거의 못하죠. 아이들 간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계모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회의가 들기도 했는데, 큰스님께서 이 소릴 듣고 '잘 하고 있다'고 하셔서 밀고 나갔죠."

이럴 때 신뢰하는 선지식의 한 말씀은 용기백배하게 하는 힘이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한다. 또한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도 전력투구하게 한다. 한 달에 두세 번은 백련암으로 가서 성철 스님을 친견하고 3000배를 하거나 만 배를 하며 힘을 냈다고 한다.

비정한 엄마 소리를 들었던 그녀는 아침 일찍 세 아이들을 깨워 108배를 하게 한 다음 학교에 보냈고, 방학을 맞으면 21일 동안 반드시 3000배를 시켰다. 사업을 하는 남편도 매일 108배를 하는 것은 물론, 해외출장을 갈 때도 '108대참회문'을 가방에 넣고 갔다고 한다.

그렇게 지독하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000배를 하고 나서 과연 그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깨진 사발도 다시 붙여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성철 큰스님께서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군요. 하루에 만 배를 할 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죽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첫 천일기도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하루 3000배 기도를 20년 동안 쉬지 않고 했다. 서른 두 살에 시작한 하루 3000배 기도가 쉰두 살에 끝난 것이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20년 동안 3000배를 했다는 것은 친구들과 만나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도 가고, 가족들과 긴 여행을 하면서 휴식을 가지기도 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텐데 후회는 없었을까.

"아니요! 절을 하니 저절로 하심이 되고 복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나요?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서 좋았어요. 늘, 내면은 차분하고 여유로웠고, 현실적인 생활에선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녀가 얻은 지혜와 복은 어떻게 세상에 회향되었을까, 궁금했다. 정진의 완성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고 하니까, 사업가의 아내인 그녀가 세상에 베풀었을 회향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지금 그녀는 매일 1080배를 한다. 나이도 있으니 좀 줄여하라는 말도 듣지만 체력이 허락하는 한 70세까지는 할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절을 하다가는 무릎이 견뎌나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글쎄 그녀를 보면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녀의 다리는 튼튼하고 무사하며, 어디 아픈 데 없고, 같은 연배들보다 20년은 더 젊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탁월한 능력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했던가. 철저한 자기절제와 굳건한 신념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건 없다. 108배로, 혹은 3천배로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보시길.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불찬범음의례교육원 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Bulchan buddhist Ceremony Education Institute
한국불교 전통 의식범례를 온전히 복원 전승하는 승가교육대도량

스님이라면 누구나 염불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지요?



- 염불을 잘하고 싶은데 ..... (범패)
- 회심곡도 잘하고 싶은데 ..... (회심곡)
- 북도 치면서 염불을 신나게 하고 싶은데 ..... (소북, 법고, 장단)
- 의식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해야 하는데 ..... (불교의식이론)

배우려면 어디로 가지? 하고 의문이 든다면
불찬범음의례교육원을 검색해 보세요.

NAVER 불찬범음의례교육원 검색
DAUM 불찬범음의례교육원
YouTube 불찬범음의례교육원

☎ 문의 02-831-1057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3.1~2017.3.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唐宋 선원, 미혹한 중생 부처 만드는 작불 학교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윤창화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5천원





당송 선원 생활문화, 철학 등 8년간 탐구
최초의 선원…백장회해가 창건한 백장사
납자 시스템은 법문, 독참, 청익, 좌선 등
깨달음 격론 벌어지는 치열한 전장 역할

'선의 황금시대'인 중국 당송시대 선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납자들을 지도했을까? 우리나라 선원처럼 화두를 준 후 무작정 앉아 있으라고만 했을까? 아니면 별도의 지도가 있었을까?민족사 윤창화 대표〈사진〉는 최근 자신이 펴낸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서 "당송시대 선원총림의 납자 시스템은 법문, 독참, 청익, 좌선 등 4가지 였다"고 설명한다. 이어 윤 대표는 "이 4가지 시스템은 가람 설계도에도 그대로 적용돼 가장 중요한 당우는 법당(설법당), 방장, 승당(선당)으로 이 세 당우가 수행 및 오도 시스템의 핵심 건물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윤 대표가 펴낸 책은 선종의 여러 청규와 선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중세(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각종 제도, 가람 구성, 생활철학, 그리고 그 사상적 바탕 등 선종의 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을 탐구한 저술이다.

윤 대표는 책속에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철학과 각종 제도, 문화, 생활상, 가람 구조, 그리고 납자 교육 및 지도 시스템의 핵심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조사로 만드는 데(成佛作祖)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즉 단순한 종교 교단이 아니고 미혹한 인간을 전인적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침묵이 감도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방장이 피로에 시달릴 정도로 깨달음의 격론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장이었다고 말한다.

역사상 최초의 선종사원은 당(唐) 중기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가 창건한 대웅산(백장산) 백장사(백장총림)이다. 그 이전에는 독자적인 선종사원이 없었다. 선승들은 율종사원에서 당우 한 채를 빌려 함께 기거(寄居)하는 이른바 더부살이 형식, 또는 독살이 형식이었다. '선종의 건설자'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선승'인 백장회해는 선종의 이상 실현을 위해 비로소 율종사찰로부터 독립해 처음으로 독자적 사원을 가졌는데, 그는 백장총림을 세우면서 몇 가지 중요한 대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불전(대웅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설법당)만 세운다. 둘째, 생활경제 즉 총림의 식생활 문제는 보청(노동)으로 해결한다. 셋째는 주지(방장)는 불조로부터 친히 법을 부촉 받은 법왕이므로 그를 높이기 위해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등이다. 이 세 가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의심할 만큼 놀랄만한 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저자는 우선 선종사원서 종교적 기능을 주로 하는 불전을 건축하지 않고, 불상도 모시지 않던 당나라 때 선종사원에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당대 조사선의 선승들은 반야지혜가 투철했다. 그들은 사상적 · 정신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한 끝에 '부처'란 목석이나 금은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고 반야지혜가 곧 부처임을 확신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반야지혜가 작동 · 가동되지 않는 부처는 나무토막이나 돌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리의 단편소설 〈등신불〉은 단하천연 선사가 불상을 쪼개서 불을 땠다는 '단하소불(丹霞燒佛)'을 소설화한 것인데, 이 선화가 시사하는 바는 목석으로 만든 불상은 지혜 작용이 없는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불상 속에는 부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강경에는 제5분 여리실견분에는 대승의 여래가 수보리에게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상(身相)서 여래를 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자,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신상에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저자는 이것이 불전을 세우지 않고 법신불이 활발발하게 작용한 법당을 세운 사상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정신은 불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송나라 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비록 시대적 요청에 의해 선종사원에 불전이 세워지고는 있었으나 그 규모가 왜소해 법당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 신자들도 각자가 개별적으로 불전에 가서 기도할 뿐, 현재 우리나라처럼 부전스님이 불전에 가서 불공을 올려 준다거나 기도 · 염불해 주지는 않았다. 불전은 있어도 아직 불공의식 등 염불문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북송시대 불전의 위상은 낮았고, 그 위치도 한쪽 모퉁이에 있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칠성각이나 독성각 정도였다. 선당(禪堂)의 납자들은 그쪽으로 일체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고 저자는 책 속에서 밝힌다.

저자가 이 주제를 탐구한 출발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토(京都)에 있는 선종사원을 답사하고 나서부터다. 교토의 선종사원인 묘신지(妙心寺), 겐닌지(建仁寺), 료안지(龍眼寺), 텐류지(天龍寺), 쇼코쿠지(相國寺), 도후쿠지(東福寺) 등과 후쿠이에 있는 에이헤이지(永平寺) 등 선종사원은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사원의 규모와 정갈함, 방장(方丈, 주지실) 당우와 선종 특유의 석정(石庭) 정원 등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책을 쓰게 한 발분망식의 계기였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8년 동안 매우 행복했다. 이 주제(선종사원, 선원총림)와 대면하면 어느새 번뇌망상 등 일체를 잊고 탐구삼매에 들었다"고 술회한다. 저자에 따르면 선종사원 즉 선원총림은 사후 왕생극락이나 현세 이익을 기원하는 종교적 · 기복적 장소가 아니고, 선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문적 수도장이었다. 선원총림은 중생을 전인적 인격자인 부처로 만들고, 불교적 바탕이 전혀 없는 범부를 위대한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선불교는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규, 생활방식 등 모든 제도를 수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납자 지도 시스템과 철학을 완성시켜 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모습과 철학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고증하며 세밀하고 집요하게 써내려 간다. 선종이 율종으로부터 독립해 그 나름의 독자적 체계를 이룩하고, 규모와 사상적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던 이유를 우직하게 탐구한다. 그가 이 연구로부터 이끈 핵심은 당송시대 선승들은 공(空)을 실현키 위해 모든 현상과 번뇌망상은 마음 작용에 지나지 않다고 파악했고, 정신적으로는 관념의 집착을 타파한 것이다. 그 상징적인 말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인 살불살조(殺佛殺祖)'이다.

실제로 선종서는 불(佛)이나 성(聖)에 대한 권위를 배격했고, 불과 불상을 그다지 신성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 납자들이 대웅전에 가서 조석예불을 하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권위의 장막(부처와 조사)을 걷어 버렸을 때 비로소 독탈무의(獨脫無依)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위로가 필요한 순간 붓다를 만나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

이필원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경전 속 이야기를 재해석 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언어를 사용했다. 세 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여든 노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인생이 묻는다,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가 찾으려 하는 그 답을 책 속에 등장하는 붓다의 가르침으로 대신하는 것은 어떨까. 이 책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삶에 꼭 필요한 조언들이다.

암탉이 여러 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암탉은 알 위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제대로 온기를 나눠주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 알들이 모두 병아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을 꾸짖은 것이다. 어느 날 붓다가 길 위에 떨어져 있는 종잇조각과 새끼를 가리키며 무엇에 사용했던 물건 같으냐고 물으셨다. 종이에선 향냄새가 났고, 새끼에선 생선 비린내가 났다. 향을 싼 종이와 생선을 묶은 새끼를 통해 현명한 이를 가까이 하면 향내가 나지만, 그렇지 않은 이를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난다는 '관계'에 대한 조언을 말했다.

한 당나귀가 소 떼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소다, 나는 소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나귀는 진짜 소가 될 수 없다. 고양이가 호랑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진짜 소는 '나는 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소로 살 뿐이다. 이처럼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된다. 붓다는 비유를 통해 '단지 생각할 뿐'인 삶을 살지 말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라는 교훈을 준다. 목동이 소를 치며 걸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동의 손에는 소를 치는 막대기가 들려있다. 멀리서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이라도, 소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기와 목동은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 이는 죽음이 생명을 재촉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늙음과 죽음은 결코 피해가지 않고 우리의 뒤를 따르니 삶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이 책은 사람 마음가짐부터 사회 전반의 이야기까지 고루 담으며 세상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세상을 바로 보는 방법, 사람을 바로 보는 방법을 전하며 불교철학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국자를 국 속에 담그는 것으로 국 맛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이 짠지 싱거운지 알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직접 떠 마셔야 한다. 경전 속 비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에 맞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전 속 비유를 아무리 쉽게 해석했다 해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붓다가 전하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여러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과 현시대에 맞춘 메시지로 모두가 고민하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묻고 붓다가 답하다〉는 저자 특유의 비유법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법을 제시 한다. 이필원 교수는 경전 속 비유를 통해 삶의 다양한 얼굴을 조명하며,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의 답을 제시한다.

경전속 이야기 이해 쉽게 재해석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의 답 제시

이 책은 경전 속 붓다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편한 민낯을 꾸짖고 개인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정확히 집어준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소란스럽다. 과도한 경쟁, 불안한 경제, 부끄러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화로 가득 찬 시대, 짜증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비유는 어린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유는 부패한 정치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이다. 비유는 '나'를 가장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비유는 사람을 가려 사귈 수 있게 하고, 비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초기경전부터 대승에 이르기까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붓다의 100가지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바로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들에 답을 찾고자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이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승/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위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중관철학, 귀류논증학파를 중심으로
게셰 탠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유불도 통섭을 통한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작법절차를 중심으로
해시/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일심(전여)의 신해성'과 '일심지한(본각)의 결정성'을 중심으로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망석승희 내용 중 '십장생'. 읊조리는 화청소리에 십장생이 차례로 떴다가 다시 차례로 사라진다.


전통 그림자극 망석승희를 계승하고 있는 거창 만석중놀이보존회 단원들.


극 중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용과 잉어'와 함께 작법에 임하는 한 대수 씨.

고려시대 망석승희가 일러주는 '人生無常'

연등회보존위, 만석중놀이보존회 초청 '망석승희' 시연회

고려시대 관등놀이로 연희돼
무언 · 그림자 · 전통 인형극
십장생 · 망석중 등 모습 통해
헛된 탐식과 인생무상 표현

고려시대부터 사월초파일 관등놀이의 하나로 연희되던 망석승희(忘釋僧œ)가 10여년 만에 서울서 재현됐다.

거창 전통그림자극 만석중놀이보존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초청으로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서 초파일 민속연희 '전통그림자극 망석승희'를 시연했다. 연등회보존위 측은 "망석승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숭유억불 조선시대를 거쳐 점점 쇠퇴하다 1920년대에 명맥이 끊긴 초파일 민속연희 전통 그림자극이다. 1983년 일반극단서 '만석중놀이'란 이름으로 재현복원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여러 지역 사찰서 사월초파일마다 시연해왔지만 서울에선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망석승희는 글을 모르는 민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교극이다. 큰 절 또는 마당 넓은 민가서 담이나 넓은 벽을 의지해 기둥을 세우고, 차일을 평평하게 붙잡아 매 흡사 극장 영사막처럼 장치했다. 그 뒤에 화톳불을 피워놓고 사람이 숨어 그림자만 나오게 놀리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 그림자극이다. 또한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며, '망석중'이란 나무 인형을 사용하는 전통 인형극이다.

40여 분간 무언(無言)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뛰어난 음향과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은은한 주황빛 스크린 위 춤추는 십장생과 '탁' '탁' 죽비소리를 내며 서 있는 망석중 그림자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망석승희가 일러주는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든다.

특히 극의 절정에 다다르면 용과 잉어가 등장해 서로 여의주를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는 헛된 탐식과 영욕을 좇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이번 시연의 연출을 맡은 한대수 씨는 "'망석중'이라하면 스님들을 희화하고 폄하하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망석중은 스스로를 '중'이라 낮춰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다. 십장생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과 머리를 치는 모습은 어리석음을 스스로 탓하는 깨우침"이라며 "불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망석승희가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등회보존위 측은 "이번 재현행사는 불교계서 시연 주최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며 "오늘 시연 후 현대에 맞게 재현해 사월초파일 마다 공연, 계승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연에 나선 만석중놀이보존회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맥이 끊겼던 망석승희를 현대까지 계승해 온 단체다. 1983년 한국민속극연구소 부설 극단 서낭당서 재구성해 발표한 것을 토대로, 1997년 창립됐다.

만석중놀이보존회 공연은 민속학자이자 1인극 배우인 심우성 씨가 고증 및 구성을 맡았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예능보유자 故 일응스님이 화청을, 한대수 씨가 연출 및 작법을 맡았다. 이밖에 박용기 · 김현영 · 이종진 · 황덕하 · 박동화 · 하용현 · 표주향 씨 등이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강남전통예술단 무용단원 공개모집

훈련장 1명 · 무용단원 5명… 12일 까지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이 강남전통예술단(단장 정성숙) 무용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중 무용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훈련장 1명과 무용단원 5명이다.

응시자격은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없는 자로, 키 165cm 이상 가능하다. 접수는 3월 12일까지 이메일(jss5804@naver.com)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증명사진 첨부)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외국의 경우 번역본 공증) △경력증명서 · 수상경력증명서 · 기타 경력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메일 접수시 각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실기심사 시 제출할 것.

실기심사는 3월 13일 오전 11시 강남구민회관 연습실서 자유작품(전통무용 및 창작무용)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4일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강남전통예술단의 '강남연가'는 조선시대 한강에 설치된 최초 나루터 사평나루와 봉은사를 배경으로, 여사당패 '이화'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춤과 소리로 표현하는 전통 연희극이다.

박아름 기자


강남전통예술단 정성숙 단장이 강남연가 공연서 인사를 하고 있다.

동자승과 노승의 여정, 베를린 사로잡다

Interview

'앙뚜' 문창용 감독

"제가 영화에 담고자 했던 이야기가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단 자체가 놀라웠어요. 오랫동안 작업한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앙뚜'로 제67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성장영화 섹션)서 심사위원 선정 최우수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한 문창용(47) 감독. 문 감독은 3월 1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서 "관객과 공감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앙뚜' 제작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앙뚜'는 린포체인 주인공 앙뚜가 사원서 쫓겨난 뒤 노스승 우르갼과 함께 전생에 머물던 티베트의 한 사원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해발 3,500m의 라다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둘의 이야기는 한없이 사랑스러웠다가도, 또 고난을 겪기도 하며 끊임없는 관계변화가 생긴다.

"2009년 EBS 의학 다큐멘터리 촬영차 라다크를 찾았다 앙뚜와 우르갼을 처음 만났는데 둘이 주고받는 눈빛, 웃음, 표정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었죠. 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담고 싶단 생각에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자가 아닌 문 감독이 동자승과 노승의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적 이야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집안은 불교지만, 전 독실한 불자라고 할 수 없어요. 불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단지 둘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고행의 길을 떠나는 동자승과 노승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모습서 수행의 가치를 엿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 감독은 그렇게 2009년부터 해마다 2~3차례 라다크를 찾았다. 특히 문 감독은 앙뚜가 스승 (우르갼)의 헌신적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앙뚜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반항심이 생기면서 둘의 관계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의 사랑에 대한 앙뚜의 깨달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전진 감독과 라다크서 8년간 촬영
린포체 앙뚜 · 스승 우르갼 얘기담아
제67회 베를린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결정돼
"쉽게 전개되지만 많은 것 생각하게"


다큐멘터리 영화 '앙뚜'로 제67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문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문창용 감독(사진 왼쪽)과 전진 감독.
사진제공=엣나인필름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순탄치만은 않았죠. 혼자였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2013년부터 공동감독 겸 프로듀서로 참여한 전진 감독이 함께 고생했어요. 같이 작업하니 더 큰 힘이 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수상한 '앙뚜'는 "관객들을 울고 웃게 만든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란 평가를 얻었다. '앙뚜'는 이번 베를린영화제서 총 4회 상영되는 동안 매진 행진이 이어졌으며, 첫날 상영서는 9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엔딩 직후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문 감독에게 "다른 다큐멘터리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스토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 살아가며 상실해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한다"고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앙뚜'는 2014년 프랑스 'Sunny Side of The Doc 센트럴 피칭'과 '암스테르담 IDFA 코리아피칭데이 피칭'서 선보이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국내서는 올 9월 개봉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蓮絲로 짠 만다라, 이고득락 염원 담다

〈연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⑤ 다이마데라(當麻寺)

다이마데라(當麻寺)는 나라(奈良)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오사카 시내의 덴노지(天王寺)역에서 가기에 더 쉽고 편한 곳에 위치한다.

깊은 역사가 있는 나라의 사찰들은 그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는 것이 좋지만, 다이마데라는 떠오르는 것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본에서 '하나노데라(花の寺)'라는 표현이 있다. 꽃으로 유명한 사찰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사람이 사찰을 찾아가는 목적이 불상을 배례하는 것 외에도 예쁜 꽃을 구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 때가 종종 있다. 내가 다이마데라에 처음으로 가본 것이 10년 전이었는데, 그 때의 목적도 모란(牧丹)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다이마데라에 가보기 전, 나에게는 다이마데라는 꽃으로 유명한 사찰이라는 이미지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봤더니 유명한 불상도 안치되어 있고 역사도 깊어 한두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간단하게 알 수 없는 사찰의 매력에 빠졌다.

다이마데라 창건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7세기 초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의 이복 동생인 마로코신노(麻呂子親王)가 건립한 사찰을 약 70년 후 마로코신노 손자인 다이마노마히토쿠니미(當麻眞人國見)가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긴테쓰 다이마데라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다이마데라 인왕문(仁王門)이 나온다. 인왕문을 지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국보)이다. 범종 다음은 왼쪽에 나카노보(中之坊)가 있고, 나카노보 뒤에 삼중탑인 동탑(국보)이 있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오른쪽에 강당, 왼쪽에 금당이 있고 왼쪽 뒤에는 삼중탑인 서탑(국보)이 보인다. 나라에서는 고대나 중세에 지은 탑이 여기저기 남아있으나 고대 동·서 쌍탑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곳은 다이마데라 뿐이다.

강당과 금당을 지나면 정면에 본당인 만다라당(曼荼羅堂)이 있다. 그런데 인왕문에서 만다라당까지 걸으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주로 왼쪽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걷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찰에서 없는 일이다. 대개 보통의 사찰들은 남쪽에서 들어가 북쪽으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다이마데라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전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보 다이마만다라를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주조히메의 동상.

지도를 보면 다이마데라 남쪽에 '다케노우치카이도(竹內街道)'라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옛날에 오사카와 나라를 잇는 중요한 길이었다. 창건 당시에 다케노우치카이도가 있는 남쪽에 문이 있었고 원래는 남쪽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람 배치도 이해가 간다.

종파가 2개 있는 것도 다이마데라의 특징이다. 원래는 삼론종(三論宗)이었으나 지금은 진언종(眞言宗)과 정토종(淨土宗)이 공존한다. 823년에 구카이(空海) 대사가 다이마데라에 와서 만다라를 배례하고 다이마데라에서 수행한 것을 계기로 진언종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다이마데라에 9세기 말에서 12세기에 제작된 훌륭한 불상이 많은데, 이것도 진언밀교화 된 다이마데라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헤이안(平安)시대 말기에 말법사상(末法思想)의 보급에 따라 내세에 아미타여래의 서방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신앙이 번졌고 아미타당이 여기저기 건립되었다. 그때부터 다이마데라는 아미타여래의 정토를 그린 다이마만다라를 안치한 사찰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가마쿠라시대에 들어 정토종의 개조 호넨(法然) 스님의 제자인 쇼쿠(證空) 스님이 다이마만다라를 그대로 복제한 다이마만다라를 보급시켰다. 심원한



오쿠노인서 바라본 다이마데라 동·서 쌍탑의 전경. 두 탑 모두 국보로, 서탑은 현재 수리 중에 있다.



다아마데라는 모란으로도 유명하다. 겨울에도 고결하게 피었다.

오사카-나라 잇는 길의 사찰
진언종·정토종 공존하며 수행
국보 '다이마만다라' 제작 설화
가부키 등 전통예능으로 인기

교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만다라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이마만다라는 763년에 귀족 딸인 주조히메(中將姬)에 의하여 하룻밤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곱고 총명한 주조히메는 어렸을 때 어머님을 여의고 계모의 손에 자랐다. 계모는 주조히메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조히메는 계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만민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 16세 때 해가 지는 니조잔(二上山) 기슭에 있는 다이마데라를 방문했다. 당시 여성은 다이마데라에 못 들어갔지만 주조히메는 열심히 독경하고 기도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진을 이어가자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비구니가 되었다. 사찰에서 주조히메는 오로지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어느 날 어떤 노비구니가 나타나 주조히메한테 연(蓮) 줄기를 모으라고 명령했다. 주조히메는 연 줄기를 여기저기서 모아 노비구니의 지시에 따라 줄기에서 실을 꺼내 이 실을 오색(五色)으로 염색했다. 그러자 다음에는 어떤 젊은 여성이 나타나 주조히메와 함께 오색으로 염색한 실로 직물을 짜기 시작했다. 저녁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완성되었다. 국보 다이마만다라는 이렇게 탄생했다. 만다라가 완성된 후 젊은 여성이 홀연히 없어지고 노비구니도 사라졌다. 이 비구니가 바로 아미타부처이고 젊은 여성이 관음보살이었다. 마음이 밝아진 주조히메는 절에서 더 열심히 수행했다. 29세 때 주조히메 앞에 아미타불과 이십오보살(二十五菩薩)이 나타나 주조히메를 극락정토에 데리고 갔다.

주조히메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전설인지 잘 모르겠다. 학술 조사를 통해서 만다라가 직물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직물의 실은 연 실이 아니라 비단실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다. 확실한 것은 주조히메가 다이마데라의 상징이고 주조히메를 주인공으로 하는 노(能)·가부키(歌舞伎) 등 일본 전통 예능이 있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매년 5월 14일에 보살들이 극락정토에서 주조히메를 데려다가 현세에 와서 주조히메가 보살들을 따라 극락왕생 하는 것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1005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천 년을 넘어 계속 봉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겠다.

국보 다이마만다라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드물게 박물관 특별전에서 전시될 때도 있다. 2013년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한 '다이마만다라 1250년 기념특별전'에서 공개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한다.

본당(만다라당), 강당, 금당을 관람할 때는 먼저 본당에서 티켓을 산다. 이 티켓으로 3곳을 관람할 수 있다. 본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이마만다라는 16세기 초에 복제한 것이다. 본당에는 주조히메와 함께 만다라를 짰다고 전하는 관음보살도 안치되어 있다. 강당은 병화로 소실되어 가마쿠라시대에 들어 다시 지은 것이다. 강당에 안치되었던 창건 당시의 불상도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당에서 보는 불상들이 모두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여기에 옮긴 것이다. 금당에는 원래 다이마데라 본존이었던 미륵불좌상과 사천왕입상이 안치되어 있다. 금당의 불상 대부분이 하쿠호(白鳳)시대(7세기 중반~710년)에 제작되었다. 사천왕상이 호류지 금당 사천왕상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 된 사천왕상인데, 다이마데라 사천왕상의 턱에 수염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내가 처음으로 다이마데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천왕상의 이국적인 얼굴이었다.

경내의 가장 뒤에 있는 오쿠노인(奧院)도 가보기를 권한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곳에서 동서탑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서탑은 수리 중). 오쿠노인 보물관에는 10세기에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는 철불을 실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닌 철불을 좋아한다.

글·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다이마데라 주변 볼거리



오사카 JR덴노지역이 있는 곳에 긴테쓰 아베노바시역이 있는데 다이마데라에 갈 때는 여기서 전차를 탄다. 가시하라진구마에역 행을 타면 다이마데라역까지 직접 갈 수 있는데 30분에 한 번밖에 전차가 없으니 좀 더 여유있게 출발하는 것이 좋다(소요시간 약 40분).

다이마데라역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사찰 입구에 도착한다. 문 앞에 있는 후타카미라는 식당에서 나라 명물인 일식 소면과 가키노하즈시(감잎으로 싼 초밥)를 맛볼 수 있다.



사찰 앞 식당 후타카미의 명물 소면과 감잎 초밥.

다이마데라 경내를 관람한 후 북쪽 문에서 밖으로 나가 북쪽방향으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셋코지(石光寺)라는 아담한 사찰에 나온다. 주조히메가 연 실을 오색으로 염색했다고 전하는 우물이 여기에 있다. 셋코지도 꽃으로 유명한 사찰이고 모란, 작약이 피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셋코지는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이 있는 사찰이다. 1990년대의 발굴 조사 결과 석불이 파손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높이 2미터 이상이 되는 이 석불은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그리고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두 차례 공개된다.

셋코지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미치노에키후타카미파쿠타이마에 나온다. 미치노에키란 도로휴게소인데 현지의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보기만 해도 재미있다. 다이마의 미치노에키는 인기가 있어 항상 붐빈다.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험담하는 사람 좋게 이야기 하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을 좋게 이야기 하세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해친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악업과 습관을 닦을 수 있는 더 좋은 방편은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기에는 이성(異性)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입시 준비로 인해 자유롭게 이성 교재를 하지는 못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대상이 부모에서 이성 친구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 경쟁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면 사랑과 낭만에 대한 호기심이 시들해져 버립니다. 물론 용기 있는 청춘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요즘 '3포 세대(결혼, 출산, 내 집 마련)'라는 푸념이 사회 전반에 가득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앞서 세 가지에 꿈과 희망하는 직업, 인간관계와 연애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사랑이란 환상에 사로잡혀 '백마 탄 왕자'를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중독된 사랑과 우정'도 문제이지만, 서로 친밀감을 나누며 알아주고 소통하는 '지음(知音)'의 우정과 사랑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영혼의 동료라는 의미인 '소울메이트(soul-mate)'는 남녀 · 연인의 낭만적 사랑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과 동료 등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만나 성공을 돕는 존재를 말합니다.

즉, 사랑과 우정의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탈이 나겠지요. 경전 중 하나인 〈능엄경〉에 등장하는 아난과 마등가녀 이야기는 사랑을 넘어선 집착을 경책합니다.

마등가녀 이야기

아난존자는 어릴 때 출가해 25년간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며 그 가르침을 가장 잘 기억해 부처님 입멸 후 결집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모가 매우 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홀로 걸식을 떠났다가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에서 한 여인이 물 긷는 것을 보고 목이 말아 그녀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아난존자에게 물을 떠주며 힐끗 보고는 천하에 둘도 없는 용모에 그만 반하고 맙니다. 여인은 존자의 이름을 물은 후 그의 처소를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가에서 아난이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전 그 스님에게 꼭 시집갈 거에요! 시집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마등가라는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외도의 사술에 능했습니다. 묘책을 강구하던 어머니는 아난존자를 집으로 초대해 공양을 올리면서,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난존자는 어머니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이므로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주술을 부려 아난존자를 결박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멀리서 아난존자가 파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아시고 문수보살을 보내 구출하게 했습니다.

아난존자를 놓친 마등가녀는 기원정사로 달려와 아난존자만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아난은 스님이라 삭발했으니 너도 아난처럼 머리를 깎을 수 있겠느냐?"

"아난존자의 부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쯤은 문제없습니다."

"네가 아난을 사랑하였다 하니 무엇을 보고 사랑했는가?"

"저는 아난존자의 눈과 코, 입과 귀, 소리와 몸매와 걸음걸이 등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고통의 근본
상대 수용하는 성찰 시간 필요
사성제 통해 사랑 眞儀 찾아야
사랑 · 우정, 우리를 성장 시킨다

"너의 말마따나 아난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또한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귀에는 귀딱지, 몸뚱이 안에는 대소변을 담고 있는 가죽주머니가 있다. 만일 아난과 네가 서로 부부가 된다면 육신이 서로 결합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게 되면 창자를 오리는 듯한 슬픔을 느낀다. 이러한데 네가 아난과 부부가 된들 무엇이 그리 행복하겠는가?"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애욕을 떠나 '아라한'이 됩니다. –〈능엄경〉 중에서

사랑의 6가지 유형

사랑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 봄에 비유됩니다. 또 사랑의 힘은 만물이 움트고 화사한 꽃처럼 피어나는 창조성으로 발현됩니다. 마등가녀가 애욕의 고통을 딛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과 이후의 집착은 고통을 수반했지만 마등가 여인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우애적 사랑(storge), 실용적 사랑(pragma), 소유적 사랑(mania), 이타적 사랑(agape)입니다. 1차적 사랑은 열정적 · 유희적 · 우애적 사랑이고, 2차적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결합한 실용적(유희적+우애적) · 소유적(열정적+유희적) · 이타적 사랑입니다. 잘 생긴 외모나 섹시한 매력에 이끌린 감정은 열정적 사랑이고, 남녀가 서로에 대한 헌신이나 배려 없이 게임처럼 즐기는 관계는 유희적 사랑, 친구로서 알아가는 과정은 우애적 사랑, 상대가 자신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는지 따지는 건 실용적 사랑, 질투와 끊임없는 불안에 휩싸이는 건 소유적 사랑, 타인을 배려하는 자기희생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집착의 고통을 가져오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상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받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성제, 성숙의 계단 오르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펼쳐지는 낭만적 사랑이나 사랑으로 인한 갈등은 애착과 집착이 되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고자 한다면 집착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1900~1980)은 사랑은 주고받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남을 사랑하는 능력과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를 잘 사랑해야 상대를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한다면 사성제(고집멸도, 苦集滅道)를 통한 성숙의 계단 오르기를 제안합니다. ①상대에게 집착하는 고(苦)를 딛고 ②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각하는 집(集) 단계를 지나 ③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관계를 숙성시키는 멸(滅)을 넘고 ④상대와 자신을 돕는 성숙의 도(道)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사성제 성숙의 계단'은 상대에 대한 집착 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사랑과 우정을 성숙케 해 '소울메이트'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ßº¿° ,•¸ ¯„ø˜,
¢ ì˜¿¡ ˙¿œ "» ...»˙·˙· .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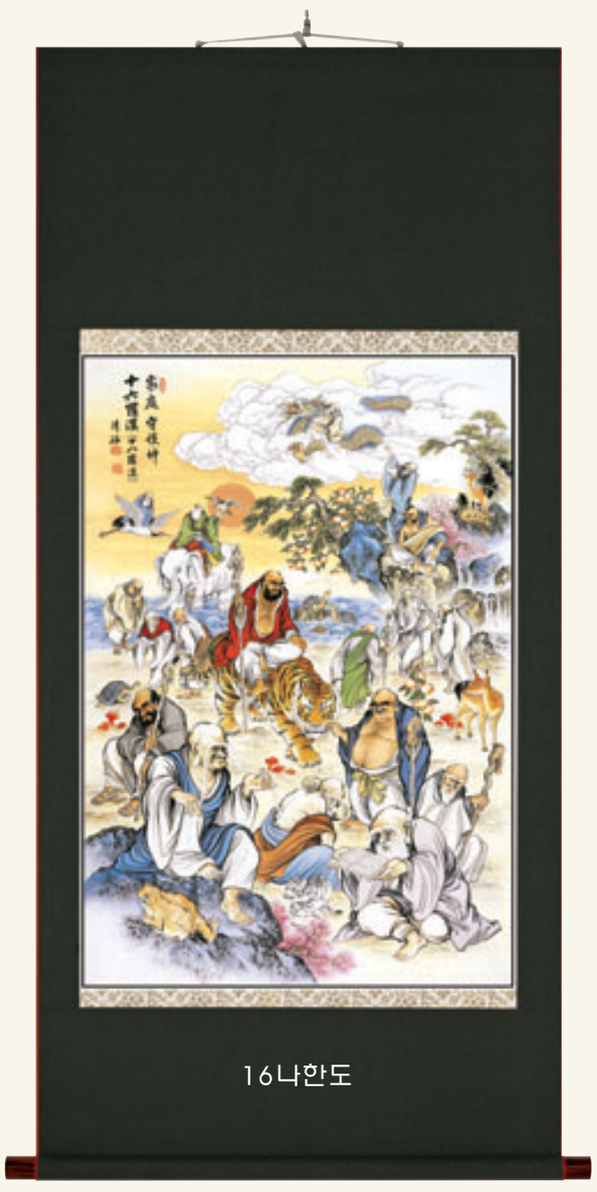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